문학 개념 이해·적용 09

소설의 서술자·시점과 서술 방식

08편에서는 사건의 구성과 배경·소재의 작용을 살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같은 사건을 누가, 누구의 눈과 생각에 맞추어, 어떤 말과 문장으로 전하는지 살핍니다. 전해진 사실과 인물·서술자의 판단을 나누면 작품의 표현과 효과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살필 다섯 가지 — 한 작품 안에서 함께 성립합니다

묶음 1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누가 이야기를 전하나? 기본 시점 네 가지	E01~E05
묶음 2	**정보와 거리**	누구의 눈으로, 어디까지 알려 주나? 믿을 수 있나?	E06~E10
묶음 3	**개입과 제시**	서술자가 평가하나? 정리해 말하나, 장면을 보여 주나?	E11~E15
묶음 4	**문체**	어떤 말투와 문장으로 전하나?	E16~E20
묶음 5	**웃음과 평가**	무엇을 어떻게 웃기며 비판하나?	E21~E24

개념 정리 한 장으로 다시 보기

개념 적용 Q01~Q44

종합 적용 자료 A~D · Q45~Q60

정답과 해설 A01~A60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개념 이해

묶음 1.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기본 시점

묶음 1	묶음 2	묶음 3	묶음 4	묶음 5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정보와 거리	개입과 제시	문체	웃음과 평가
E01~E05	E06~E10	E11~E15	E16~E20	E21~E24
지금 여기				

〔**시점이란**〕 시점은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작품 안 / 작품 밖), **무엇을 어디까지**(속마음까지 / 겉모습 중심) 전하는지를 가리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작품 속 인물인지 살피고, 인물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봅니다. 1인칭 주인공·관찰자는 누구의 사건이 중심인지도 확인합니다.

E01 작가와 서술자는 같은 사람인가요?

> **한 줄 답**
> **작가는 작품을 만든 실제 사람이고, 서술자는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작가는 자신과 다른 인물을 **서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에 "나는 열두 살 때 등대에 살았다"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 작가의 나이와 이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대사 속 "나"와 이야기를 전하는 "나"도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

세나는 우산을 접으며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인물의 대사 라고 말했다. 준기는 문을 열고 나갔다.

이 부분에서 "나"는 대사를 말하는 세나입니다. 대사 바깥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을 다른 목소리가 전합니다. "나"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1인칭 서술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해 · 대사 속 “나”와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

실제 작가
작품을 만든 사람
· 작품 상자 밖

작품

세나는 우산을 접으며	작품 속 서술자의 목소리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대사를 한 사람: 세나 · 대사 속 나 = 세나
라고 말했다. 준기는 문을 열고 나갔다.	작품 속 서술자의 목소리

비유로 이해하기
영화의 배우가 배역을 맡듯 작가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작가가 배우처럼 직접 무대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만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소설 속 “나”의 경험은 작가의 실제 경험이다.	작가와 서술자를 나누고, 인용된 대사를 제외한 서술 문장에서 말하는 주체를 확인합니다.
따옴표 안에 “나”가 나오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나”이다.	대사 속 “나”와 이야기를 전하는 “나”도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지금의 “나”는 대사 속 인물인가요, 사건을 독자에게 전하는 서술자인가요?

연결 문항 Q01, Q07

E02 서술에 “나”가 나오면 주인공 시점인가요?

한 줄 답
“나”가 중심 사건을 겪는 주인공이며 그 일을 스스로 전할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선택과 변화가 중심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은 직접 전하지만, 남의 마음은 말·행동·전해 들은 내용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고백하듯 들려주므로 내면이 생생하고 독자가 친근감·신뢰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예시

[전체 줄거리] 나는 깨뜨린 온실 유리를 숨겼다. 밤새 망설인 끝에 관리인에게 내 잘못을 밝혔다 **나의 선택** . 유리값을 갚으며 남의 일을 몰래 덮어 두던 버릇을 고쳤다 **나의 변화** .

숨김과 고백, 변화의 중심이 모두 “나”입니다. 내가 자신의 일을 전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내가 찍고 내가 주인공인 브이로그처럼, 나의 일과 마음을 내가 직접 들려줍니다. 친구 마음은 친구의 말이나 행동으로 알아갑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브이로그 속 나는 실제 사람이지만 소설 속 “나”는 작가가 만든 인물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1인칭 서술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관찰·추측·대화·전해 들은 말을 통해 알게 된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나”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니 그 판단도 모두 믿을 수 있다.	친근하게 들린다고 판단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E08에서 말과 다른 근거가 어긋나는 경우를 살핍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중심 문제를 겪고 선택하며 달라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결 문항 Q02, Q06, Q45

E03 1인칭 관찰자도 사건에 끼어들 수 있나요?

한 줄 답

사건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중심인물의 일을 주로 관찰하여 전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도 중심인물을 돕거나 질문하고 자기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가를 때는 누가 말하는지와 누구의 사건이 중심인지를 함께 봅니다. 주인공의 숨은 마음을 직접 알리지 않아 궁금증·긴장이나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전체 줄거리] 나는 벽화가인 이모의 물감을 날랐다. 이모는 건물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얼굴을 벽에 남겼고 **중심인물의 행동**, 마지막 날에는 그림의 일부를 떼어 주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이모가 그림을 나누던 날을 기록했다.

"나"도 참여하지만 중심 사건과 선택은 이모의 것입니다.

도해 · 말하는 "나"와 사건의 중심

예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사건의 중심	"나"가 한 일	시점
E02 온실 유리	나	**나** **숨김·고백·변화**	유리를 숨기고, 밝히고, 버릇을 고침	**1인칭 주인공**
E03 벽화	나	**이모** **벽화를 남기고 나눔**	물감을 나르고 기록함	**1인칭 관찰자**

"나"가 무언가를 했다고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거리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경기를 뛴 팀원이 다른 선수의 마지막 시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의 중심 선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경기 참여 여부가 곧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심 사건을 누구에게 맞추어 전하는지에만 주목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관찰자가 물감을 날랐으므로 "나"가 주인공이다.	일부 행동에 참여한 사실과 중심인물이라는 판단을 구별합니다.
짧은 장면에서 "나"가 많이 움직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짧은 한 문장만으로 주인공과 관찰자를 가르기 어려우므로 전체 줄거리도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나"의 행동을 빼고 보아도 다른 인물의 선택과 변화가 줄거리의 중심으로 남나요?

연결 문항 Q03

E04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가”는 실제 작가인가요?

한 줄 답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아는 위치에서 여러 인물의 속마음과 숨은 사실까지 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전지적(全知的)은 “모든 것을 앎”이라는 뜻이며, 이름 속 “작가”는 실제 작가가 아니라 작품의 서술자를 가리킵니다. 여러 인물의 마음과 사건 전체를 설명하여 인물과 사건을 폭넓게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평가나 논평을 덧붙이기도 쉽습니다.

예시

서진은 빈 상자를 보고 동생이 선물을 버렸을까 두려웠다 **서진의 속마음**. 동생은 상자를 옷장으로 옮겼다는 말을 꺼내면 깜짝 선물이 들통날까 망설였다 **동생의 속마음**. 두 사람은 서로 그 이유를 몰랐다.

이야기 밖의 목소리가 두 인물의 말하지 않은 마음을 모두 전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 혼잣말까지 들을 수 있는 투명한 해설자를 떠올려 보세요.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지 매 장면 모두의 속마음을 다 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전지적 작가 시점은 등장인물 전원의 생각을 매번 알려 준다.	전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지금 선택하여 전한 정보의 양은 다릅니다.
짧은 부분에 한 인물의 마음만 나오면 작품 전체도 그 인물의 마음만 전한다.	다 알 수 있다는 것과 매 문장 모두의 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 인물의 마음만 나온 짧은 부분으로 작품 전체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인물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서술자가 알려 주는 내면이나 숨은 사실이 있나요?

연결 문항 Q04, Q06, Q07, Q08, Q41

E05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감정을 전혀 못 느끼게 하나요?

한 줄 답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말·행동·모습처럼 겉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전하는 시점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인물이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물이 대사로 자기 감정을 밝히는 것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의 제시입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과 극적 효과를 주며, 독자가 말·행동을 통해 속마음을 상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정원은 문 앞에서 봉투를 접었다 폈다. "혼날까 봐 겁나." **들리는 대사** 그가 말했다. 누나가 다가오자 정원은 봉투를 등 뒤로 옮겼다 **보이는 행동** .

겁난다는 감정은 정원의 대사에 나타납니다. 이 대사를 들려주었다고 서술자가 내면을 직접 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해 ·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

E05 예문 — 밖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보이는 행동 봉투를 접었다 폈다

인물 자신의 대사 "혼날까 봐 겁나."

보이는 행동 봉투를 등 뒤로 옮겼다

비교용 문장(E05 예문에는 없음)

"정원은 실수가 들통날까 두려웠다."

말하지 않은 내면 직접 설명

이런 문장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가 쓰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창밖에서 들리는 대화와 보이는 손동작을 기록하는 것처럼, 관찰 가능한 정보만으로도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문학의 서술은 기계 녹화가 아닙니다. 무엇을 골라 어떤 말로 보여 주는지에도 표현 의도가 담깁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등장하면 관찰자 시점일 수 없다.	감정이 전달된 통로가 행동·대사인지, 서술자의 직접 내면 설명인지 가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기계처럼 기록만 해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글이다.	관찰하듯 전한다는 뜻이지 글에 작가의 선택이나 관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서술자가 알려 준 사실 중 밖에서 보고 들을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01, Q04, Q05, Q07, Q08, Q41, Q60

같은 사건, 네 시점

조건 아래는 민재가 화분을 깨뜨리고 숨기는 일을 중심으로, 시점을 비교하려고 같은 사건을 고쳐 쓴 예문입니다. 이 예문 세트의 시점은 제목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읽습니다.



같은 장면, 누가 어떻게 전할까?

1인칭 주인공(나=민재)

공이 내 손을 떠나자 화분이 깨졌다. 들킬까 봐 겁이 났다 **나의 속마음** . 나는 조각을 사물함 뒤로 밀어 넣었다.

1인칭 관찰자(나=하윤)

나는 민재가 던진 공에 화분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관찰자인 나의 마음** . 민재는 조각을 사물함 뒤로 밀어 넣었다. 그 애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주인공의 겉모습** .

전지적 작가

민재는 들킬까 봐 겁이 나 **민재의 속마음** 조각을 숨겼다. 그 모습을 본 하윤은 선생님께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윤의 속마음** .

3인칭 관찰자

화분이 깨졌다. 민재가 조각을 사물함 뒤로 밀어 넣었다 **보이는 행동** . 하윤이 고개를 돌렸다.

시점	이 예문이 민재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나요?	이 예문이 하윤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나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1인칭 주인공	✅ 겁남	❌ 알려 주지 않음	작품 속 민재
1인칭 관찰자	❌ 겉모습으로 짐작	✅ 놀람	작품 속 하윤
전지적 작가	✅ 겁남	✅ 망설임	작품 밖 서술자
3인칭 관찰자	❌ 알려 주지 않음	❌ 알려 주지 않음	작품 밖 서술자

✅·❌는 **위 예문에서 직접 알려 준 속마음**을 표시합니다. ❌라고 인물에게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인칭 관찰자도 자기 마음은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독자가 알게 되는 속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눈에 가르기 — 시점 2×2 판

서술자의 위치	중심인물의 속마음까지 직접 전함(내부 이야기)	중심인물을 관찰하여 전함(외부 관찰)
작품 안의 "나"(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 중심인물인 "나"가 자기 사건과 마음을 전함. 내면이 생생하고 친근감·신뢰감을 주기 쉬움.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가 다른 주인공의 일을 관찰해 전함. 주인공의 숨은 마음에 대한 궁금증·긴장·여운을 줄 수 있음.
작품 밖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여러 인물의 속마음과 숨은 사실을 전할 수 있음. 폭넓은 이해를 돕고 개입·논평이 나타나기 쉬움.	**3인칭 관찰자 시점** — 말·행동·모습을 관찰해 전함.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극적 효과를 주고 속마음을 상상하게 함.

1인칭 관찰자의 "나"도 **자기 마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인공의 마음은 말·행동에서 짐작하거나 전해 들은 범위에서 전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주인공 시점"이라고 가르지 않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선택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한 인물의 속마음과 앎에 한정하여** 전하는 경우입니다. E06에서 이 기본 판에 제한적 경우를 더합니다.

효과는 시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실제 지문에서는 근거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

0 따옴표 속 "나"는 빼고, 서술 문장만 보았나요?

아니오 → 대사 속 "나"를 빼고 다시 봄

↓ 예

1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가요?

예 ↙ 작품 속 인물(1인칭)

2 "나"가 중심 사건을 겪고 선택·변화하나요?

- **예** 1인칭 주인공 시점
- **아니오** 1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오 ↘ 작품 밖(3인칭)

3 인물이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전하나요?

- **예** 전지적 작가 시점
- **아니오** 3인칭 관찰자 시점

> 한 인물에게만 계속 맞춰져 있으면 E06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짧은 발췌만으로 작품 전체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Q07).

묶음 2. 정보·초점·신뢰성과 거리

묶음 1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E01~E05

묶음 2
정보와 거리
E06~E10
지금 여기

묶음 3
개입과 제시
E11~E15

묶음 4
문체
E16~E20

묶음 5
웃음과 평가
E21~E24

E06 한 사람의 마음만 따라가면 1인칭인가요?

한 줄 답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선택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한 인물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범위에 맞추어 전하는 시점입니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만 **한 인물의 속마음**은 직접 전합니다. 그 인물이 모르는 일은 독자에게도 당장 알려 주지 않아 함께 모르는 채 따라가게 합니다. 이 때문에 긴장이나 궁금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 이 장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리아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합니다.

예시

리아는 문 너머의 속삭임을 들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모르는 것**. 자신을 부를까 봐 **리아의 속마음**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리아의 두려움은 직접 전하지만 문 너머 대화의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도해 · 제한된 정보의 창

서술자는 이야기 밖 · 리아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에 한정

확인된 감각	문 너머의 속삭임을 들었다
알려진 내면	자신을 부를까 봐 두려워 손을 뗐다
아직 알려 주지 않은 것	? 문 너머 말의 내용

예를 들면 2 — 같은 화분 사건을 민재에게 한정하면

조건 작품 밖의 서술자가 민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합니다.

예시

민재는 겁이 나 **민재의 속마음** 조각을 숨겼다.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가 모르는 것**. 민재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시점	이 예문이 민재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나요?	이 예문이 하윤의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나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1인칭 주인공	✅ 겁남	❌ 알려 주지 않음	작품 속 민재
1인칭 관찰자	❌ 겉모습으로 짐작	✅ 놀람	작품 속 하윤
전지적 작가	✅ 겁남	✅ 망설임	작품 밖 서술자
3인칭 관찰자	❌ 알려 주지 않음	❌ 알려 주지 않음	작품 밖 서술자
제한적 전지적 작가	✅ 겁남	❌ 누구인지도 모름	작품 밖 서술자 (민재에게 한정)

✅·❌는 **위 예문에서 직접 알려 준 속마음**을 표시합니다. ❌라고 인물에게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인칭 관찰자도 자기 마음은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독자가 알게 되는 속마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해 · 시점을 판단하는 순서(완성판)

0 따옴표 속 "나"는 빼고, 서술 문장만 보았나요?

아니오 → 대사 속 "나"를 빼고 다시 봄

↓ 예

1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인가요?

예 ↙ 작품 속 인물(1인칭)

2 "나"가 중심 사건을 겪고 선택·변화하나요?

- **예** 1인칭 주인공 시점
- **아니오** 1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오 ↘ 작품 밖(3인칭)

3 인물이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전하나요?

- **예** → 4단계로 이동
- **아니오** 3인칭 관찰자 시점

4 작품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한 인물의 앎과 속마음에 계속 한정되나요?

- **예**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 **아니오** 전지적 작가 시점

※ 짧은 발췌만으로 작품 전체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판단을 보류합니다(Q07). 충분한 범위에서 외적 관찰만 이어지는지, 정보가 한 인물에게 계속 한정되는지, 여러 인물의 마음·숨은 사실을 자유롭게 전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한 사람에게 달린 액션캠과 그 사람의 속마음만 들리는 이어폰을 함께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카메라가 그 인물 자신은 아닙니다. 서술자는 그 인물을 "나"가 아니라 "그"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인물의 마음을 알면 반드시 모든 사람의 비밀도 알려 주어야 한다.	한 인물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에 맞추어 정보를 제한하는 서술도 있습니다.
한 장면에 한 사람의 마음만 나오면 곧바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짧은 부분에 한 사람의 마음만 나온다고 작품 전체가 제한적 시점인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그 인물에게 계속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독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아직 알려 주지 않은 정보는 각각 누구의 앎과 연결되나요?

연결 문항 Q09, Q16, Q42, Q49, Q50, Q51, Q52

E07 서술자와 초점 인물은 어떻게 가르나요?

한 줄 답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이고, 초점 인물(초점 화자)은 장면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서술자의 위치가 그대로여도 **초점 인물**은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지와 누구의 눈·귀·생각을 따라가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가) 은서는 창밖으로 노란 우산을 보았다. 저 우산이 왜 아직 저기 있을까, 은서는 걱정이 되었다 **은서의 속마음**.

(나) 우산 아래의 태오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은서일 거라고 태오는 기대했다 **태오의 속마음**.

두 장면 모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은 은서에서 태오로 달라집니다.

도해 · 목소리는 그대로, 초점은 바뀜

작품 밖 서술자 유지 (두 장면 모두 “은서는”, “태오는”으로 부름)

(가) 초점 인물: 은서	→ 장면의 제시 차례	(나) 초점 인물: 태오
본 것 노란 우산		**들은 것** 계단의 발소리
마음 걱정		**마음** 기대

비유로 이해하기

중계하는 목소리가 그대로인 채 화면이 한 선수의 시야에서 다른 선수의 시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초점은 눈에 보이는 정보만이 아니라 생각과 속마음도 포함합니다. 실제 카메라의 위치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초점 인물이 바뀌면 반드시 서술자도 바뀐다.	전달하는 목소리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을 각각 확인합니다.
새 인물이 등장하면 초점 인물도 그 사람으로 바뀐다.	장면에 사람이 새로 나타났다고 자동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누가 전하는지와 누구에게 보이고 들리는지에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연결 문항 Q09, Q10, Q16, Q42, Q49, Q50, Q52

E08 믿기 어려운 서술자는 모두 거짓말쟁이인가요?

한 줄 답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는 지식·이해·가치 판단의 한계 등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서술자입니다.

어린 서술자가 어른의 사정을 오해할 수 있고, 자기 행동을 좋게만 평가하는 서술자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인지 판단할 때는 말과 다른 근거가 어디서 어긋나는지 찾습니다. 일부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한 일까지 모두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예시

나는 우리 집 전등이 일찍 꺼져서 모두 푹 쉬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해석** .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이번 달 전기료도 밀렸구나 **판단을 점검할 근거** " 하고 한숨을 쉬었다.

"나"의 낙관적 해석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이 어긋납니다. "나"가 일부러 속였다고까지 할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저녁, 다른 해석.

도해 · 보고와 해석을 나누기

사실 보고	우리 집 전등이 일찍 꺼졌다	
서술자의 해석	모두 푹 쉬게 되었다	**다른 근거와 대조**
해석을 점검할 근거	아버지의 한숨, “이번 달 전기료도 밀렸구나”	

믿기 어려운 것은 “나”의 해석입니다. 전등이 꺼졌다는 보고까지 거짓은 아니며, 일부러 속였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경기 결과표는 정확히 옮겨 적었지만 “우리 팀은 언제나 운이 나빠서 진다”는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실제 인물의 인격을 단정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전달한 사실과 붙인 평가를 분리하는 데만 씁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서술자의 판단 하나가 틀리면 그가 전한 모든 사건은 없던 일이다.	사실 보고와 해석·평가를 나누어 어느 부분을 믿기 어려운지 밝힙니다.
서술자의 판단이 틀렸다면 서술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일부러 속였다는 결론에는 따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서술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11, Q12, Q15, Q16, Q45, Q46, Q47, Q48, Q51

E09 인물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면 그 인물 편인가요?

한 줄 답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속마음을 얼마나 아는지와 인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개념입니다.

속마음을 아는 정도와 **인물을 편들거나 비판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두려움을 알려 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잘못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물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시

윤호는 상을 놓칠까 조바심이 났다 **인물의 속마음**. 그래서 동료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다. 자기 불안을 덜려고 남의 노력을 없앤 것은 비열한 일이었다 **서술자의 비판**.

조바심에 접근한 것과 이름을 지운 행동을 비판한 것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학생의 사정을 잘 아는 담임 선생님도 그 학생이 잘못한 일은 분명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선생님은 실제 사람이고 서술자는 목소리입니다. “안다”와 “편든다”가 다르다는 점만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내면을 설명했으므로 서술자는 인물을 옹호한다.	앎의 범위와 호의·비판의 태도를 각각 근거로 판단합니다.
속마음을 알려 주는 글에는 그 인물을 비판하는 문장이 나올 수 없다.	속마음을 알려 주는 문장과 행동을 비판하는 문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마음을 알려 주는 문장과 인물을 평가하는 문장을 따로 찾을 수 있나요?

연결 문항 Q13, Q47

E10 독자와 서술자·인물의 거리는 모두 같은 뜻인가요?

한 줄 답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그 말을 믿는 정도와,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그 처지를 이해·공감하는 정도와 관련됩니다.

독자는 서술자의 자랑을 의심하면서도 그가 겪은 외로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이해·공감**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와 표현이 독자의 판단을 바꾸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시

서술자인 "나"는 혼자 모든 준비를 했다고 자랑한다 **서술자의 자기평가** . 그러나 앞 장면에는 친구들이 밤새 함께 준비한 일 **엇갈리는 근거** 이 나온다. 뒤에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까 두려웠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독자는 자랑을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인정받고 싶은 불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해 · 거리의 세 관계

누구와 누구		살필 기준
서술자	인물	**속마음을 아는 정도** 그리고 **호의 또는 비판의 태도** — 둘을 따로 봅니다
독자	서술자	**정보·판단에 대한 신뢰** — 그 말을 믿을 수 있나?
독자	인물	**처지·내면의 이해와 공감** —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나?

E10 예: 자랑은 의심하면서(독자와 서술자) 인정받고 싶은 불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독자와 인물). 두 판단이 함께 가능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친구의 변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면서도 왜 불안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모든 독자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품이 어떤 반응의 근거를 주는지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서술자의 판단을 의심하면 인물의 어떤 사정에도 공감할 수 없다.	정보·평가에 대한 신뢰와 인물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분리합니다.
인물의 사정을 이해하면 그 인물의 잘못도 옳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거리는 실제 공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인물의 사정을 이해해도 잘못을 옳다고 감싸 줄 필요는 없으며, 독자의 반응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믿기 어려운 판단과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어떤 근거로 설명하나요?

연결 문항 Q11, Q14, Q15, Q46, Q47, Q48, Q50

한눈에 가르기 — 서로 다른 질문

묻는 기준	확인할 근거
서술자	누가 이야기를 전하는가?
초점 인물	누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전하는가?
어디까지 알려 주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직 알려 주지 않는가?
신뢰성	서술자의 판단이 다른 말·행동과 어긋나는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속마음을 아는 정도와 호의·비판의 태도가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가?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정보·판단을 얼마나 믿고 따를 근거가 있는가?
독자와 인물의 거리	처지·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할 근거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묶음 3. 개입과 사건 제시 방식

묶음 1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E01~E05

묶음 2
정보와 거리
E06~E10

묶음 3
개입과 제시
E11~E15
지금 여기

묶음 4
문체
E16~E20

묶음 5
웃음과 평가
E21~E24

E11 심리 설명과 서술자의 논평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서술자의 개입은 자신의 생각·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며, 그중 주관적 평가·판단이 두드러지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설명한 말과 **서술자가 평가한 말**을 구별합니다. 평가 표현이 있어도 인물의 대사나 생각 속 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감탄하거나 평가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시

(가) 문희는 약속을 잊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인물의 마음** .
(나) 약속을 잊고도 남을 탓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였다 **서술자의 평가** .
(다) 문희는 "그 사람은 무책임해" **인물의 대사** 라고 말했다.

(가)는 인물의 마음, (나)는 서술자의 평가, (다)는 인물의 대사 속 평가입니다.

(라) 제 곳간만 채우느라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하니, 어찌 그 마음을 곱다 하겠는가 **서술자의 비판** .

(라)는 이 원고에서 만든 고전풍 예문입니다. 이웃을 외면한 행동을 서술자가 비판합니다.

도해 · 평가한 사람 찾기

문장	근거 말	누구의 것	분류
(가)	부끄러웠다	인물(문희)의 마음	인물 심리
(나)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였다	**서술자**	**서술자의 평가(편집자적 논평)**
(다)	"그 사람은 무책임해"	인물(문희)의 말	인물의 대사 속 평가

비유로 이해하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행동 옆에 제작진이 "어이없음" 같은 평가 자막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자막은 실제 제작진이 붙이지만 논평은 작품에 설정된 서술자의 목소리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무책임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모두 서술자의 논평이다.	누구의 평가인지 확인합니다. 인물의 대사와 서술자의 논평은 같지 않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책을 만든 편집자가 붙인 메모이고, 감탄문·의문문이면 모두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은 실제 출판 편집자의 메모가 아닙니다. 의문문·감탄문 모양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평가를 한 주체는 인물인가요, 사건을 전하는 서술자인가요?

연결 문항 Q13, Q17, Q18, Q38, Q57, Q58, Q60

E12 요약적 제시는 무엇을 정리해서 말해 주나요?

한 줄 답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정리해서 직접 말해 주는 방식(말하기)입니다.

서술의 두 뜻

구분	뜻
넓은 뜻의 서술	이야기를 전하는 일 전체
좁은 뜻의 서술	묘사·대화와 나란히 놓고 볼 때, 서술자가 인물·사건을 설명하며 전하는 방식

정리하는 대상이 **인물**이면 성격·심리를 직접 설명하고, **사건**이면 긴 시간을 짧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여러 장면을 펼칠 때보다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07편의 직접 제시는 말하기, 간접 제시는 보여 주기와 연결됩니다.

예시

(가) 연주는 작은 약속도 잊지 않는 사람 **성격 정리** 이었다.
(나) 연주는 다섯 해 동안 세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사건 요약** 신발을 고치는 일을 배웠다.

(가)와 (나)는 모두 요약적 제시입니다. (가)는 인물의 성격을, (나)는 다섯 해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도해 · 요약적 제시(말하기)가 정리하는 두 대상

요약적 제시(말하기) — 서술자가 정리해서 직접 말해 줌

인물 요약: 성격 설명

(가) 연주는 작은 약속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건 요약: 시간 압축

(나) 다섯 해의 일 → 한 문장

사건을 요약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둘 다 요약적 제시 · 정리한 대상이 다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드라마가 "3년 후" 자막으로 여러 해를 건너뛰는 것은 시간 요약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드라마는 화면이고 소설은 문장입니다. 긴 시간을 짧게 압축해서 알려 준다는 점만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요약적 제시는 긴 시간을 줄인 문장에만 해당한다.	인물의 성격·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말하기도 포함합니다.
성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긴 시간이 흐른 것이다.	성격 한 가지를 요약했다고 긴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압축한 것이 인물의 성격 정보인가요, 여러 해에 걸친 사건인가요?

연결 문항 Q19, Q23, Q24, Q43, Q53

E13 장면적 제시는 대화만 있으면 되나요?

한 줄 답

장면적 제시는 대화·행동·묘사로 한 장면을 눈앞에 보이듯 펼치는 방식(보여 주기)입니다.

묘사는 모습과 감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방식이고, **대화**는 인물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장면을 펼치면 현장감·생동감이 살아나고, 같은 사건을 요약할 때보다 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은 07편의 간접 제시와 연결됩니다.

예시

민아가 찻잔을 밀었다 **행동** . 찻물 위의 작은 빛이 테이블 끝에서 흔들렸다 **묘사** . “가지 말면 안 돼?” **대화**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해.” 준서가 잔을 다시 당겼다.

짧은 순간의 손동작, 빛의 묘사, 두 사람의 말이 함께 장면을 이룹니다.

말하기: 호준은 마음씨 착한 아이였다 **말하기** .
보여 주기: 호준은 복도에서 넘어진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일어나자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건넸다 **보여 주기** .

첫 문장은 성격을 알려 주고, 뒤의 장면은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도해 ·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요소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 짧은 한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침

행동	감각적 묘사	주고받는 말
찻잔을 밀었다 잔을 다시 당겼다	작은 빛이 테이블 끝에서 흔들렸다	“가지 말면 안 돼?”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해.”

세 요소가 언제나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준은 마음씨 착한 아이였다.

요약적 제시(말하기)



손을 내밀고 책을 주워 줌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비유로 이해하기

친구가 "그 애는 착해"라고 말해 주는 것과, 그 애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뒤의 경우가 보여 주기와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실제 행동을 보는 것과 문장으로 읽는 것은 다릅니다. 장면을 통해 성격을 짐작한다는 점만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장면적 제시와 묘사와 대화는 서로 함께 나타날 수 없는 세 유형이다.	장면을 펼치는 큰 방식 안에서 묘사와 대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면적 제시라면 대화와 묘사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한다.	장면마다 대화와 묘사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는 관계·갈등을 드러내고 결정이나 약속으로 사건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독자가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말·행동·감각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20, Q21, Q24, Q53, Q55

E14 생각이 나오면 모두 의식의 흐름인가요?

한 줄 답

의식의 흐름은 생각·감정·감각이 연상에 따라 이어지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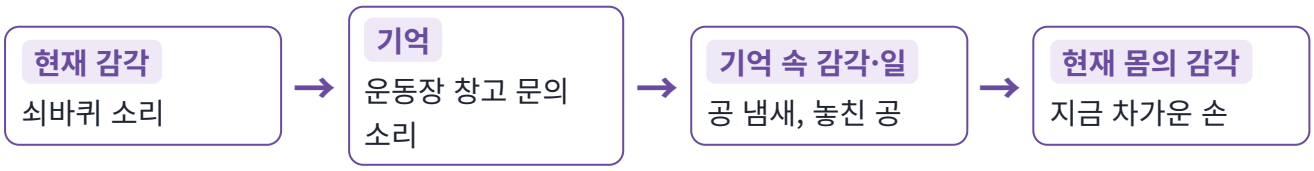
"나는 걱정했다"는 마음을 직접 설명한 문장입니다. 이것만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앞의 소리가 옛 기억을 부르고, 그 기억이 다른 감정과 생각으로 이어지는 등 의식의 움직임 자체가 표현되는지를 봅니다.

예시

쇠바퀴 소리 **현재 감각**. 운동장 창고 문 **연상한 기억** 도 저 소리를 냈지. 그 안의 공 냄새, 마지막 공을 놓친 손. 지금 내 손 **현재 감각으로 이동** 은 왜 또 차가울까.

현재의 소리에서 기억·냄새·몸의 감각으로 연상이 이어집니다.

도해 · 연상을 따라가는 의식 (→ 글에 제시된 연상의 차례)



비유로 이해하기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수학여행의 버스, 그때의 친구, 못 전한 편지가 차례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실제 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옮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품에서 선택하고 구성한 표현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문장이 짧고 "생각했다"가 있으므로 의식의 흐름이다.	서로 다른 감각·기억·생각이 어떤 연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짧은 문장이나 문장 조각이 이어지면 의식의 흐름이다.	짧은 문장이나 문장 조각도 단독 판정 기준은 아닙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현재 감각에서 다음 기억이나 생각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22, Q24, Q54

E15 짧은 문장은 빠르고 긴 문장은 느린가요?

한 줄 답

문장 길이와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는 다른 기준입니다.

사건 진행의 속도는 **이야기 속 시간**을 **얼마나 많은 말과 장면으로 전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십 년이 흘렀다"는 짧은 문장이 오랜 시간을 넘기지만, 짧은 문장 여러 개가 손을 멈추는 한순간을 길게 펼칠 수도 있습니다. 문장 길이만으로 시간 압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가) 여섯 달 동안 **긴 시간** 둘은 매주 만나 울타리를 고쳤다.

(나) 못 하나가 기울었다. 망치가 멈췄다. **짧은 순간을 펼침** 그는 못 끝을 손가락으로 바로 세웠다.

(가)는 여섯 달을 한 문장으로 넘기고, (나)는 못 하나를 바로잡는 짧은 순간을 세 문장으로 펼칩니다.

도해 · 문장 길이와 시간 압축

(가) 여섯 달 동안 둘은 매주 만나 울타리를 고쳤다.	
이야기 속 시간	**여섯 달**
제시한 문장	**1문장**

(나) 못 하나가 기울었다. 망치가 멈췄다. 그는 못 끝을 손가락으로 바로 세웠다.	
이야기 속 시간	**짧은 순간**
제시한 문장	**3문장**

문장 수 ≠ 실제 시간

비유로 이해하기

영상에서 한 달의 공사를 짧게 넘길 수도 있고, 나사 하나를 조이는 순간을 길게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문학의 속도는 영상 재생 시간처럼 정확히 잴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압축과 확장을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문장이 세 개이므로 한 문장인 글보다 이야기 속 시간이 더 많이 흐른다.	문장 수와 사건의 실제 시간 범위를 분리합니다.
문장이 짧으면 사건을 빠르게 요약한 것이다.	문장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요약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야기 속 시간은 얼마나 흐르고, 그 시간이 몇 문장으로 제시되나요?

연결 문항 Q23, Q24, Q32, Q43, Q53, Q55

한눈에 가르기 — 전달 방식의 근거

방식	직접 확인할 것	주의
심리 설명	인물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내용	서술자의 평가와 구별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가 덧붙인 평가·판단	인물 대사의 평가와 구별
요약적 제시(말하기)	인물이나 사건을 정리해 직접 알려 줌	인물 요약(성격 설명)과 사건 요약(시간 압축)이 모두 포함됨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말·행동·감각이 순간을 펼침	모든 장면에 대화가 필수는 아님
의식의 흐름	연상에 따른 감각·기억·생각의 이동	단순한 감정 설명만으로 판정하지 않음

문장 길이와 시간의 관계는 묶음 4의 간결체에서 다시 봅니다.

묶음 4. 문체와 표현의 효과

묶음 1	묶음 2	묶음 3	묶음 4	묶음 5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정보와 거리	개입과 제시	문체	웃음과 평가
E01~E05	E06~E10	E11~E15	E16~E20	E21~E24
			지금 여기	

E16 구어체와 문어체는 대사가 있느냐로 나누나요?

한 줄 답

문체는 어휘·문장·리듬의 표현 특색이며, 구어체는 말하는 듯한 표현, 문어체는 글의 격식이 두드러지는 문체입니다.

구어체는 독자에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문어체**는 글에서 주로 쓰는 격식 있는 어휘와 표현을 씁니다. 대사가 없어도 서술 문장을 말하듯 쓸 수 있습니다.

예시

(가) 그날 말이야 말하는 듯한 표현 , 버스를 놓쳤지 뭐야.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더 걸었어.
(나) 그는 버스를 놓쳤다. 이에 마을을 한 차례 더 돌아보기로 하였다 글의 격식 .

(가)는 독자에게 말하듯 전하는 표현이, (나)는 상대적으로 격식 있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친구에게 보내는 “나 지금 가”라는 메시지와 “내일 등교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가정통신문은 말투가 다릅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소설의 구어체가 메신저 말투를 그대로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하는 듯한 느낌과 격식의 차이만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대화가 없는 부분에는 구어체가 나타날 수 없다.	서술자의 문장 자체가 일상에서 말하는 듯한지 살핍니다.
대사 한 줄이 말하듯 쓰였으면 작품 전체가 구어체이다.	대사 한 줄이 구어적이라고 작품 전체를 구어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말투를 판단하게 하는 어휘나 어미를 실제로 짚을 수 있나요?

연결 문항 Q25, Q27

E17 간결체와 만연체는 좋은 글·나쁜 글의 구별인가요?

> **한 줄 답**
> **간결체는 문장을 짧고 간명하게 쓰고, 만연체는 수식과 절을 길게 이어 펼치는 문체입니다.**

간결체·만연체는 문장 구성의 차이이며 좋은 글과 나쁜 글의 구별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도 긴장·단절·담담함을, 긴 문장도 이어지는 감각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한순간을 여러 동작으로 펼칠 수 있으므로 문장 길이와 시간 압축은 따로 판단합니다.

예시

(가) 바람이 그쳤다. 문이 열렸다. **짧게 끊는 문장** 우진이 들어왔다.
(나) 처마 밑 종이를 밤새 흔들던 바람이 잦아들 무렵 **수식과 절 연결**, 먼 길을 돌아온 우진이 젖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가)는 짧은 문장을 나란히 놓고, (나)는 수식과 절을 길게 이어 장면을 펼칩니다.

도해 · 문체를 가르는 두 기준

기준	한쪽	다른 쪽
말투·격식	**구어체** 말하듯	**문어체** 글의 격식
문장 구성	**간결체** 짧고 간명	**만연체** 수식과 절을 길게 연결

새 예

"왔어. 봤지?"

구어체 + 간결체

기준이 달라 함께 성립

비유로 이해하기

짧은 메시지를 톡, 톡, 톡 여러 번 보내는 것과 한 번에 길게 이어 쓴 편지 한 통을 비교해 보세요.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메시지 수가 아니라 한 문장의 길이와 연결 방식이 문체의 기준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만연체는 쓸데없이 길게 쓴 틀린 문장이다.	문장 길이와 구성 방식의 특징을 먼저 확인하고, 장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판단합니다.
구어체로 쓴 글은 간결체인지 만연체인지 따질 수 없다.	구어체·문어체는 말투와 격식의 기준이므로 간결체·만연체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문장의 길이와 수식·절의 연결에서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연결 문항 Q23, Q26, Q27, Q32, Q43, Q55

E18 소설에서도 운문체를 쓸 수 있나요?

한 줄 답

운문체(율문체)는 반복과 가락으로 운율이 두드러지는 문체이며 소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운문체는 비슷한 구조와 말소리를 되풀이하여 리듬을 만듭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고전 소설에는 4음보처럼 일정한 가락이 자주 나타납니다. 줄바꿈 자체보다 반복과 가락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시

길을 돌면 들꽃이요, 들을 지나면 냇물이요 **구조와 어미 반복**, 냇물을 건너면 또 길이었다.

"~면 ~이요"의 반복과 비슷한 문장 구조가 가락을 만듭니다.

도해 · 반복이 만드는 가락

길을 돌면 들꽃이요,
들을 지나면 냇물이요,
냇물을 건너면 또 길이었다.

물결 밑줄 "~면", 겹밑줄 "~이요" — 비슷한 구조·어미의 반복이 귀에 들리는 가락을 만듭니다. 여기서 줄을 나눈 것은 보기 쉽게 하려는 것이고, 근거는 반복입니다. 소설 안에서도 운문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평소 이야기하다가 일정한 박자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잠깐 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소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장을 운문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락이 두드러지는지 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소설은 산문 갈래이므로 운문체가 나올 수 없다.	갈래와 표현 방식의 기준을 나누어 봅니다.
운율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소설이 아니라 시가 된다.	작품의 갈래와 한 부분의 문체는 다릅니다. 운율이 나타난다고 소설이 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리듬을 만드는 반복 구조나 말소리는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28

E19 방언·비속어가 나오면 웃기려고 쓴 건가요?

한 줄 답

방언은 특정 지역 등에서 쓰는 말이고, 비속어는 격이 낮거나 거친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방언은 지역의 특색이나 현장감을, **비속어**는 거친 태도나 친밀한 관계 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의 종류만 보고 웃음이나 적대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물의 행동과 상대의 반응을 함께 살핍니다.

예시

(가) 할머니는 비에 젖은 방문객에게 "어서 오이소 **방언**. 옷부터 말립시더." 하며 수건을 건넸다.
(나) 길이 막힌 인물은 "젠장 **비속어**, 또 닫혔네" 하고 발을 굴렀다.

(가)는 지역 말투와 손님을 맞는 행동이, (나)는 거친 말과 짜증스러운 행동이 함께 제시됩니다.

도해 · 말의 종류와 이 장면에서의 효과

말의 종류	함께 나온 행동	이 장면에서의 효과
방언 "어서 오이소"	젖은 방문객에게 수건을 건넴	지역 특색 ·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비속어 "젠장"	발을 구름	짜증 · 거친 태도

말의 종류만으로 효과를 정하지 않고, 행동과 상황을 함께 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친구가 장난치며 거친 말을 할 때와 얼굴을 굳히고 따질 때는 같은 낱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소설에서는 실제 말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주변 행동과 상대의 반응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거친 말을 친밀함으로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방언은 언제나 해학이고 비속어는 언제나 싸움을 뜻한다.	말의 종류와 그 장면에서의 효과를 따로 설명합니다.
비속어를 쓰면 그 인물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말을 듣는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 표현은 어떤 관계·태도를 드러내나요?

연결 문항 Q29, Q30

E20 감각적 표현과 서술자의 어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감각적·서정적 표현은 감각과 정서를 두드러지게 하고, 서술자의 어조는 인물·사건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색·소리·냄새 등을 생생하게 전하거나 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하면 **감각적·서정적 표현**을 살핍니다. 인물·사건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비웃는 말에는 **서술자의 어조**가 나타납니다. 인물이 슬프다는 사실과 서술자의 말투가 슬프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예시

(가) 붉은 저녁빛 시각적 표현 이 빈 의자 등받이에 얇게 내려앉았다.
(나) 한 번도 제 자리를 갖지 못한 아이가 그 의자마저 내주어야 했다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서술자의 태도 .

(가)는 시각적 장면과 분위기를, (나)는 인물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도해 · 감각과 어조의 근거

눈앞에 그려지는 장면

(가) 붉은 저녁빛 · 빈 의자 등받이

감각적 표현

서술자가 인물을 대하는 태도

(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서술자의 어조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소식을 안타까운 목소리로 전할 때와 비웃는 목소리로 전할 때는 말의 온도가 다릅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소설에서는 실제 소리 대신 낱말과 문장에서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슬픈 일을 다루는 서술자는 언제나 슬픈 어조로 말한다.	인물의 상황과 서술자의 말에서 확인되는 태도를 분리합니다.
감각적인 표현이 있으면 그것이 곧 서술자의 어조이다.	정서적 표현, 평가, 서술 방식 가운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감각을 불러오는 말과 인물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31, Q32, Q37, Q54, Q56

한눈에 가르기 — 문체의 기준

기준	비교할 개념	함께 볼 근거
말투·격식	구어체 / 문어체	어휘·어미·독자에게 말하는 듯한 표현
문장 구성	간결체 / 만연체	짧게 끊기 / 수식·절을 길게 연결
가락	운문체	반복되는 구조·어미·말소리
어휘의 성격	방언 / 비속어	지역 말투 / 거친 표현과 상황
감각·정서	감각적·서정적 표현	색·소리·냄새·분위기
정서적 태도	서술자의 어조	인물·사건을 대하는 말의 태도

구어체와 간결체처럼 다른 기준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 효과는 지문의 상황에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묶음 5. 웃음·비판과 어조

묶음 1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E01~E05

묶음 2
정보와 거리
E06~E10

묶음 3
개입과 제시
E11~E15

묶음 4
문체
E16~E20

묶음 5
웃음과 평가
E21~E24
지금 여기

E21 웃음이 나오면 모두 풍자인가요?

한 줄 답

풍자는 대상의 모순이나 부정을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드러내 비판하는 방식입니다.

풍자의 웃음은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꼬집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스운 모습만 발견하고 끝내지 말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나 부당한 제도처럼 비판의 대상을 밝혀야 합니다. 직접 욕하지 않고 겉으로 한 칭찬의 말이나 과장된 행동으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전 책임자는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둡시다 내세운 말 "라는 표지판을 크게 만들었다. 그 표지판을 보관할 곳이 없자 비상구 앞에 눕혀 두었다 어긋난 행동 .

안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통로를 막는 모순이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시사 만평이 높은 사람의 허세를 과장해 그려 잘못을 꼬집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만평은 그림이고 소설은 인물의 말·행동과 서술로 비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누군가 넘어지는 장면은 모두 사회 풍자이다.	우스운 행동이 무엇을 비판하는지 지문 근거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겉으로 내세운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나요?

연결 문항 Q33, Q36, Q40, Q44, Q57, Q60

E22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기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해학은 대상을 따뜻하게(연민·애정) 바라보며 익살스럽게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풍자가 잘못을 꼬집는 **날카로운 웃음**이라면 해학은 대상을 감싸는 **따뜻한 웃음**입니다. 함께 웃기·도와주기처럼 인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근거를 찾습니다. 한 작품 안에 풍자와 해학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시

아저씨는 돋보기를 찾느라 주머니를 네 번이나 뒤졌다. 아이가 아저씨 머리 위를 가리켰다. "거기서는 책이 잘 보여요?" 아저씨는 머리에 얹힌 돋보기 **실수** 를 내리며 함께 웃었다 **따뜻한 시선** .

일상의 실수와 재치 있는 말이 웃음을 만들고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반응이 친근함을 더합니다.

도해 · 웃음의 온도

비교	풍자	해학
이 예에서 웃음의 대상	잘못·모순을 보이는 인물·사회	평범한 사람의 작은 실수
바라보는 태도	비판·공격	연민·애정
웃음의 느낌	날카로운 웃음	따뜻한 웃음
이 편의 예	비상구를 막은 안전 책임자(E21)	머리 위 돋보기를 찾는 아저씨(E22)

희화화는 두 쪽 모두에 쓰이는 표현 방법입니다(E23).

비유로 이해하기

가족 앨범에서 아빠가 티셔츠를 거꾸로 입은 사진을 보며 아빠도 함께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실제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을 감싸는 시선이 핵심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우스운 행동이 나오면 인물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없이 모두 해학이다.	익살뿐 아니라 인물을 감싸는 따뜻한 시선도 확인합니다.
풍자와 해학은 한 작품 안에 함께 나올 수 없다.	도움을 건네는 행동, 부드러운 반응 등 인물을 대하는 시선을 함께 살핍니다. 풍자와 해학이 한 장면에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웃음을 만드는 행동과 친근함·연민을 뒷받침하는 반응은 각각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34, Q39, Q40, Q59

E23 희화화는 풍자와 다른 상자에 넣어야 하나요?

한 줄 답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방법으로, 풍자와 해학 모두에 쓰일 수 있습니다.

풍자는 비판하는 기능에, 해학은 인물을 따뜻하게 감싸는 웃음에, **희화화**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표현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과장된 몸짓, 앞뒤가 어긋나는 행동, 우스운 모습 등이 희화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기 키만 한 훈장 과장 을 달겠다고 고집하던 인물이, 훈장이 문틀에 걸려 옆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우스운 행동 .

과장된 훈장과 옆걸음은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희화화입니다. 공적보다 겉치레를 중시하는 태도가 맥락에서 드러난다면 풍자와도 연결됩니다.

도해 · 웃음의 기능과 표현 방법

이름	무엇에 초점을 두나	확인할 질문
풍자	기능: 모순·부정을 비판	무엇을 꼬집나?
해학	태도: 대상을 감싸는 따뜻한 웃음(연민·애정)	어떤 시선으로 웃나?
희화화	표현 방법: 우스꽝스럽게 그림 예) 문틀에 걸린 큰 훈장, 옆걸음	어떻게 우습게 그렸나?

서로 다른 기준이라 하나의 장면에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과장해서 그린 모습이 시사 만평에서는 비판에, 가족 만화에서는 따뜻한 웃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희화화가 크기를 과장하는 방법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표현 방법이 다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합니다.

오해 ✕	바로잡기 ✓
희화화라고 했으므로 풍자나 해학은 아니다.	표현 방법과 그 방법이 하는 기능을 나누어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무엇을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그렸으며, 그것이 어떤 태도나 모순을 드러내나요?

연결 문항 Q34, Q35, Q36, Q40, Q44, Q58, Q59

E24 냉소와 반어는 같은 말인가요?

한 줄 답

냉소는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이고, 반어는 겉으로 한 말(표면적 의미)과 속뜻(실제 의미)이 반대인 표현입니다.

"그가 또 약속을 어겼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에는 **차갑게 낮추어 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참 믿음직하군"이라고 하면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반대**입니다. 냉소와 반어는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예시

(가) 부탁을 외면하고 달아난 그에게서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차가운 비웃음** . 그는 늘 제 몫부터 챙기는 사람이었다.

(나) 길을 안내한다더니 일행을 두 번이나 잘못 이끈 사람이 있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길을 참 잘 아시네요." **상황과 반대되는 말**

(가)는 차갑게 깎아내리는 서술자의 태도, (나)는 상황과 반대되는 인물의 말이 근거입니다.

도해 · 반어 — 겉으로 한 말과 속뜻

상황	길을 안내한다더니 두 번이나 잘못 이끎
겉으로 한 말 (표면적 의미)	“길을 참 잘 아시네요” — 길을 잘 안다
속뜻 (실제 의미)	잘못 안내한 일을 비꼰다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서로 반대** · 일행 중 한 사람(인물)의 반어입니다. 반어가 언제나 냉소인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비가 쏟아지는 소풍날 “날씨 한번 좋다!”라고 하면 반어를, “흥, 그럴 줄 알았어”라며 차갑게 코웃음 치면 냉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만 맞아요 반어는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반대인 표현 방법이고 냉소는 차갑게 비웃는 태도입니다.

오해 ✕	바로잡기 ✓
비판하는 모든 문장은 반어이면서 냉소이다.	비판 여부, 차가운 비웃음,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의 반대 관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들어 있으면 모두 반어이다.	근거 없는 칭찬이나 단순한 비판을 반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어는 친근한 장난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겉으로 한 말(표면적 의미)과 속뜻(실제 의미)을 각각 쓰면 서로 반대가 되나요?

연결 문항 Q37, Q38, Q39, Q44, Q58, Q60

한눈에 가르기 — 웃음과 비판

개념	핵심 질문	관계
풍자	어떤 모순·부정을 비판하는가?	익살과 희화화를 활용할 수 있음
해학	어떤 익살과 따뜻한 시선이 웃음을 만드는가?	대상을 감싸는 따뜻한 웃음이 핵심; 한 작품에 풍자와 함께 나올 수 있음
희화화	무엇을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그렸는가?	풍자·해학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음
냉소적 어조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기는가?	비판이라는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반어적 어조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반대인가?	냉소나 친근한 장난에 모두 쓰일 수 있음

개념 정리

기본 시점 다시 보기

서술자의 위치	중심인물의 속마음까지 직접 전함(내부 이야기)	중심인물을 관찰하여 전함(외부 관찰)
작품 안의 “나”(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 중심인물인 “나”가 자기 사건과 마음을 전함. 내면이 생생하고 친근감·신뢰감을 주기 쉬움.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가 다른 주인공의 일을 관찰해 전함. 주인공의 숨은 마음에 대한 궁금증·긴장·여운을 줄 수 있음.
작품 밖(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여러 인물의 속마음과 숨은 사실을 전할 수 있음. 폭넓은 이해를 돕고 개입·논평이 나타나기 쉬움.	**3인칭 관찰자 시점** — 말·행동·모습을 관찰해 전함.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극적 효과를 주고 속마음을 상상하게 함.

1인칭 관찰자의 “나”도 **자기 마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인공의 마음은 말·행동에서 짐작하거나 전해 들은 범위에서 전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주인공 시점”이라고 가르지 않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선택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 서술자가 **한 인물의 속마음과 앎에 한정하여** 전하는 경우입니다. E06에서 이 기본 판에 제한적 경우를 더합니다.

효과는 시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실제 지문에서는 근거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기본 시점

개념	핵심 판단
작가	소설을 창작한 실제 사람
서술자	작품에서 인물과 사건을 독자에게 전하는 목소리
시점	서술자의 위치와 무엇을 어디까지 전하는지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심인물인 나가 자신의 일을 전함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 속 나가 다른 중심인물의 일을 주로 관찰하여 전함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서 여러 인물의 속마음·숨은 사실을 전할 수 있음
3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 밖에서 관찰 가능한 말·행동·모습을 중심으로 전함

정보·초점·신뢰성과 거리

개념	핵심 판단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선택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서 한 인물의 앎·속마음에 맞추어 전함
초점 인물·초점 화자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인 인물; 서술자와 구별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지식·판단·가치관의 한계 등으로 서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속마음을 아는 정도와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따로 살핌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서술자의 정보·판단에 대한 신뢰 정도
독자와 인물의 거리	인물의 처지·내면에 대한 접근과 이해·공감

개입과 사건 제시 방식

개념	핵심 판단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견해·감정을 직접 드러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중 주관적 평가·판단이 두드러짐
서술	좁게는 설명하며 전달하기, 넓게는 이야기 전달 전체
요약적 제시(말하기)	인물의 성격·심리나 여러 사건을 정리해 직접 전함; 사건 요약은 진행을 빠르게 함
묘사	모습·장면을 감각적으로 구체화
대화	인물이 주고받는 말; 관계·갈등·사건 진행 등에 작용
의식의 흐름	생각·감정·감각이 연상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드러냄
장면적 제시(보여 주기)	대화·행동·묘사로 장면을 펼침; 현장감이 살고 사건 요약보다 진행이 느려질 수 있음

문체와 표현의 효과

개념	핵심 판단
문체	어휘·문장·리듬 등의 표현 특색
구어체	일상에서 말하듯 쓰는 표현이 두드러짐
문어체	글에서 주로 쓰는 격식과 표현이 두드러짐
간결체	짧고 간명한 문장으로 전함
만연체	수식과 절 등을 길게 이어 문장을 펼침
운문체(율문체)	반복과 가락을 통해 운율이 두드러지는 문체
방언	특정 지역 등에서 쓰는 말; 상황과 연결해 효과 판단
비속어	격이 낮거나 거친 느낌의 말; 관계·태도와 연결
감각적·서정적 표현	감각·정서·분위기를 두드러지게 함
서술자의 어조	서술자의 말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태도

웃음·비판과 어조

개념	핵심 판단
풍자	모순·부정을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비판함
해학	대상을 따뜻하게(연민·애정) 바라보며 익살로 웃음을 줌
희화화	모습·행동·사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방법
냉소적 어조	차갑게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태도
반어적 어조	겉으로 한 말(표면적 의미)과 속뜻(실제 의미)이 반대인 말투

헷갈리는 짝

구별	확인할 질문
작가 / 서술자	실제로 만든 사람인가, 작품에서 전하는 목소리인가?
서술자 / 초점 인물	누가 전하는가, 누구의 눈·귀·생각을 따라가는가?
사실 / 추측	확인된 일인가,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것인가?
속마음을 아는 정도 / 호의	마음을 아는가, 행동을 편드는가?
심리 설명 / 논평	인물의 마음인가, 서술자의 평가인가?
말하기 / 보여 주기	인물·사건을 정리해 알려 주는가, 장면을 펼치는가?
간결체 / 시간 압축	문장이 짧은가, 긴 사건 시간이 줄어 있는가?
풍자 / 해학	잘못을 꼬집는 날카로운 웃음인가, 대상을 감싸는 따뜻한 웃음인가?
풍자 / 희화화	비판하는 기능인가, 우스꽝스럽게 그린 방법인가?
냉소 / 반어	차가운 비웃음인가,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의 반대 관계인가?

개념 적용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기본 시점 · Q01~Q08

Q01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연수가 문을 닫았다.

① 대사 속 “나”가 자신의 결정을 밝히므로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 유라의 결정을 전하므로 서술자는 유라의 말하지 않은 생각도 직접 설명한다.

③ 연수의 행동으로 문장이 바뀌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연수로 바뀐다.

④ 대사 속 “나”는 유라를 가리킨다.

Q02 전체 줄거리를 고려할 때, 이 이야기의 시점과 그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전체 줄거리] 나는 대회에서 친구의 설계를 내 것처럼 발표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 결국 내가 발표대에 다시 올라 사실을 밝혔고, 처음부터 내 설계를 만들기로 했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 잘못을 저지르고 고백하는 “나”가 불안을 직접 전하여 내면이 생생하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가 친구를 지켜보며 친구의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여 여운을 남긴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 — 작품 밖 서술자가 “나”와 친구의 숨은 마음을 알려 주어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전하여 독자가 속마음을 상상하게 한다.

Q03 전체 줄거리에서 “나”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전체 줄거리] 나는 강 건너 마을의 우편배달부를 십 년 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끊어진 다리 대신 산길로 편지를 날랐고, 은퇴하는 날에도 마지막 답장을 전했다. 나는 그날 그의 짐을 들어 주며 그의 일을 기록했다.

① 우편배달부의 일을 관찰하여 전하는 이야기 속 서술자이다.

② 우편배달부를 오래 지켜보았으므로 작품 밖에서 그의 속마음을 직접 아는 서술자이다.

③ 짐을 들어 준 날의 자기 행동을 중심으로 십 년의 성장을 들려주는 주인공이다.

④ 짐을 들었으므로 우편배달부를 대신한 주인공이다.

Q04 다음 부분이 겉으로 관찰한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 근거는?

> 해온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손님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손님은 해온의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① 웃는 얼굴과 문을 여는 행동을 이어 제시하여 두려움의 원인을 독자가 추측하게 한다.

② 말하지 않은 두려움을 직접 전한다.

③ 손님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는 해온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손님이 해온의 표정을 읽어 낸 내용을 해온의 시선으로 전달한다.

Q05 이 부분에서 감정이 전달되는 방식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 도윤은 의자 끝에 앉아 손톱을 만졌다. "떨어질까 봐 무서워." 그가 말했다. 옆 사람이 물병을 건네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① 옆 사람의 속마음과 도윤의 속마음을 번갈아 직접 보여 준다.

② 서술자가 도윤도 모르는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한다.

③ 도윤의 두려움이 그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④ 감정이 등장하므로 관찰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전할 수 없다.

Q06 다른 인물의 마음을 아는 경로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는 지훈이 왜 운동장을 나갔는지 몰랐다. 다음 날 그가 "다친 동생이 걱정돼서 먼저 갔어"라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그날의 마음을 알았다.

① "나"는 지훈이 운동장을 떠나기 전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다.

② 지훈의 말을 나중에 듣고 알게 된 마음을 전한다.

③ 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서술자는 이야기 밖으로 바뀐다.

④ 지훈의 말을 인용했으므로 지훈이 전체 이야기의 서술자가 된다.

Q07 이 발췌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운동장에서 공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① “그”의 행동을 전하므로 작품 전체가 3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부분은 관찰 가능한 행동·소리를 전하지만 작품 전체의 시점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③ 소리를 들은 감각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인물의 말하지 않은 심리까지 설명한다.

④ “그”가 먼저 등장하므로 작품 전체에서 그의 눈과 생각에만 맞추어 서술한다.

Q08 이 부분의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람은 자신이 상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재인은 하람이 화가 났을까 걱정했지만 묻지 않았다. 둘은 각자의 걱정을 말하지 않은 채 걸었다.

① 재인이 걱정한 마음과 묻지 않은 행동이 따로 제시된다.

② 하람과 재인이 서로 밝히지 않은 마음을 독자는 알 수 있다.

③ 인물이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제시되지 않는다.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속마음을 알려 준다.

정보·초점·신뢰성과 거리 · Q09~Q16

Q09 이 장면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려 주는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조건 이 장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하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합니다.

서하는 창고 안에서 상자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옮기는지는 몰랐다. 자기 물건이 사라질까 불안했다.

① 서하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1인칭 서술이다.

② 서하가 모르는 정체까지 독자에게 먼저 알려 준다.

③ 창고의 소리를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하의 침착한 태도가 중심이다.

④ 서하의 불안은 알려 주고, 소리의 주체는 밝히지 않는다.

Q10 서술자와 초점 인물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지수는 다리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강물 위로 작은 배가 지나갔다. 손을 흔들어도 될까, 지수는 망설였다.
(나) 배 위의 경호는 다리 난간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① 서술자가 지수에서 경호로 바뀌어 두 사람이 번갈아 직접 말한다.

② 서술자는 유지되지만 초점 인물은 지수에서 경호로 달라진다.

③ 두 인물이 같은 강을 보므로 초점 인물도 한 명으로 유지된다.

④ (나)는 지수가 난간에서 배를 바라본 모습을 계속 전하므로 초점이 유지된다.

Q11 “나”의 판단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나는 동생이 성적표를 찢은 것이 종이접기를 하려는 줄 알았다. “이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동생은 찢어진 종이를 쥐고 울었다.

① 종이접기라는 해석이 성적표를 걱정하며 우는 동생의 반응과 맞지 않는다.

② 동생의 울음을 세밀하게 전하므로 종이접기라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린 서술자의 추측이므로 동생이 성적표를 찢었다는 보고부터 의심해야 한다.

④ 엄마가 속상하리라는 동생의 말을 서술자의 종이접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Q12 서술자의 말을 읽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모임에 한 번도 늦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도 겨우 스무 분 늦었을 뿐이다. 친구들은 이미 발표를 끝내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① 늦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늦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도 타당하다고 본다.

② 늦었다는 사건 보고를 근거로 늦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를 의심한다.

③ “겨우”라고 했으므로 스무 분은 지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

④ 자기평가가 어긋나므로 친구들이 발표를 끝냈다는 보고도 과장된 변명으로 판단한다.

Q13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기범은 칭찬을 놓칠까 초조했다. 그는 동료의 작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냈다. 남의 땀을 자기 명예로 바꾸려 한 그 욕심은 추했다.

낱말 풀이 추하다: 여기서는 마음이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좋지 않고 보기 싫다.

① 기범을 비판하는 서술이므로 초조함은 독자가 행동에서 짐작해야 하는 정보이다.

② 기범이 스스로 자기 욕심을 추하다고 말한다.

③ 기범의 내면을 알므로 그의 행동을 옳다고 감싸 준다.

④ 기범의 초조함을 알면서 그의 행동은 비판한다.

Q14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부분에서는 수민이 모임을 피하는 행동만 나온다. 뒤에서는 수민이 읽기 어려운 글을 억지로 소리 내어 읽다가 놀림받은 기억과, 다시 그 일을 겪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해진다.

① 두려웠던 기억이 제시되므로 모임을 피한 행동은 옳은 선택이라는 평가도 확립된다.

② 수민의 속마음이 제시되어 독자가 서술자의 정보 자체를 덜 믿게 된다.

③ 추가된 내면 정보는 수민의 회피를 이해할 근거가 된다.

④ 앞에서는 수민이 자기 일을 전하고 뒤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로 바뀌어 거리가 가까워진다.

Q15 독자와 서술자·인물의 관계를 함께 읽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없었다면 공연은 망했을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앞 장면에는 다른 단원들이 실수를 수습하는 일이 나온다. 밤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을까 봐 잠들지 못했다.

① 독자는 “나”의 과장된 평가를 의심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

② 불안을 이해하면 공연을 혼자 구했다는 말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③ 자신의 불안을 솔직히 말했으므로 공연을 구했다는 자기평가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④ 공로의 과장이 드러나므로 밤에 잠들지 못했다는 보고도 꾸며 낸 것으로 읽어야 한다.

Q16 다음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건 이 장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윤재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합니다.

윤재는 닫힌 문을 보았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누가 웃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렸다.

① 윤재가 듣고 생각한 내용이 장면에서 독자에게 알려 주는 내용이다.

② 문 안 사람들이 윤재를 비웃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③ 서술하는 목소리와 보고 듣는 중심을 구별할 수 있다.

④ 윤재가 모르는 웃음의 주체는 독자에게도 제시되지 않는다.

개입과 사건 제시 방식 · Q17~Q24

Q17 (가)와 (나)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가) 혜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 일이 마음에 걸렸다.
(나) 어려운 친구의 부탁을 비웃다니, 참으로 야박한 태도였다.

낱말 풀이 야박하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정이 없다.

① (가)는 서술자의 비난, (나)는 혜주의 후회이다.

② “야박한 태도”는 부탁을 거절한 혜주가 자신을 돌아보며 내린 판단이다.

③ (가)는 심리 설명, (나)는 서술자의 평가이다.

④ 두 부분 모두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므로 서술자의 평가와는 구별된다.

Q18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은?

㉠ 경수는 “형은 참 이기적이야”라고 말했다. ㉡ 형은 그 말을 듣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 형이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동생에게 책임을 미룬 것은 비겁한 짓이었다.

① ㉠ ② ㉡ ③ ㉢ ④ ㉣

Q19 **두 문장의 “요약적 제시”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수아는 남에게 진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는 사람이었다.
(나) 수아는 팔 년 동안 여러 가게에서 일하며 빚을 모두 갚았다.

① (가)는 성격의 직접 설명, (나)는 사건 시간의 압축이다.

② (가)는 성격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나)는 대화를 통해 생활을 펼쳐 보인다.

③ (나)는 일한 장소를 제시하므로 시간 요약보다 한 장면의 묘사에 해당한다.

④ 두 문장 모두 팔 년 동안의 일을 압축한다.

Q20 **장면을 펼쳐 보여 주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미루가 젖은 장갑을 벗었다. 물방울이 마룻바닥에 둥근 자국을 만들었다. “길이 많이 미끄러웠어?” “다리 앞에서 넘어질 뻔했어.” 미루가 무릎을 쓸었다.

① 무릎을 쓰는 행동을 제시한 뒤 서술자가 인물의 무모함을 평가한다.

② 장갑을 벗은 일과 넘어진 일을 정리하여 미루의 성격을 직접 알려 준다.

③ 행동·묘사·대화로 한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친다.

④ 대화가 지난 일을 설명하므로 지금 장면의 행동보다 긴 시간의 압축이 중심이다.

Q21 **이 대화가 사건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쪽 길은 물에 잠겼대.” 윤슬이 지도를 폈다. “그럼 둑길로 돌아가자.” 민규가 등짐을 다시 묶었다. 두 사람은 강에서 멀어지는 길로 향했다.

① 두 사람이 다른 길을 주장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는 갈등을 부각한다.

② 정보를 나누고 경로를 결정하여 뒤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③ 잠긴 길에 관한 대화가 두 사람이 지나온 여정을 요약하여 알려 준다.

④ 인물의 관계만 드러내며 다음 행동과는 관계없다.

Q22 의식의 흐름 기법을 판단할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빵 냄새. 저 골목에도 빵집이 있었지. 돌아오지 않던 누나, 식어 버린 봉투. 왜 지금 운동화 끈이 풀려 있지. 발끝이 또 젖었네.

① 누나를 떠올린 뒤 운동화 끈을 언급하여 두 인물의 대화를 교차한다.

② 빵집의 냄새와 골목의 위치를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여 공간을 설명한다.

③ 냄새에서 옛 골목과 누나의 기억, 현재 발끝의 감각으로 생각이 이어진다.

④ 누나가 돌아오지 않은 까닭을 짧게 정리하여 인물의 처지를 설명한다.

Q23 사건을 제시하는 상대적 속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가) 세 계절 동안 마을 사람들은 둑을 보수했다.
(나) 흙 한 덩이가 흘러내렸다. 삽이 멎었다. 누군가 돌 하나를 틈에 끼웠다. 손바닥이 돌을 다시 눌렀다.

① (가)는 둑을 보수한 행동을 나열하여 한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친다.

② (나)는 문장들이 짧으므로 (가)보다 더 긴 시간을 빠르게 넘긴다.

③ (가)는 긴 기간을 압축하고 (나)는 짧은 순간을 여러 동작으로 펼친다.

④ (나)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여 보수 작업의 이유를 알려 준다.

Q2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그는 사 년 동안 매일 같은 길로 출근했다. (나) 오늘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신호등 아래 물웅덩이에 붉은 빛이 떨렸다. (다) 지난 실수가 떠올라 그는 불안했다.

① (나)는 물웅덩이의 빛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② (다)는 과거를 떠올린 마음을 설명하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두드러진다.

③ (가)는 사 년의 반복되는 생활을 짧게 압축한다.

④ 넓은 뜻의 서술에는 (나)처럼 장면을 묘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문체와 표현의 효과 · Q25~Q32

Q25 두 부분의 문체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가) 그날은 말이야, 문을 열자마자 고양이가 쏙 들어오더라.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나) 문이 열리자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뜻밖의 방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① (가)는 구어체, (나)는 상대적으로 문어체에 가깝다.
② (가)는 인물끼리 대화하지 않으므로 구어체일 수 없다.
③ (나)는 격식 있는 어미를 사용하므로 수식과 절을 길게 잇는 만연체에 가깝다.
④ 두 글은 같은 사건을 다루므로 문체의 차이는 없다.

Q26 (가)와 (나)의 문장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샜다. 초가 꺼졌다.
(나) 밤새 빈 마당을 가로질러 온 바람이 느슨한 문틈으로 스며들어 탁자 위 촛불을 한쪽으로 밀다가 끝내 꺼뜨렸다.

① (가)는 사건을 짧게 요약하고 (나)는 바람이 분 하루 전체를 압축한다.
② (가)는 행동이 이어져 구어체이고 (나)는 수식이 길어 문어체이다.
③ (가)는 짧은 문장으로 속마음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긴 대사로 성격을 드러낸다.
④ (가)는 짧게 끊고 (나)는 수식과 절을 길게 잇는다.

Q27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문체의 특징을 바르게 짚은 것은?

봤지? 문이 열렸어. 그 애가 왔어. 나도 일어났지.

① 독자에게 말을 거는 어미가 쓰였으므로 길게 이어지는 만연체가 두드러진다.
② 인물 사이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 문장이므로 문어체에 가깝다.
③ 문장이 짧게 끝나므로 격식 있는 문어체의 특징이 나타난다.
④ 구어체와 간결체의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Q28 이 부분에서 운문체의 특징을 판단할 근거는?

장돌뱅이는 고개를 넘었다. 한 고개 넘으면 구름이요, 두 고개 넘으면 바람이요, 세 고개 넘으면 저녁이었다.

낱말 풀이 장돌뱅이: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① 행을 나누지 않고 이어 썼으므로 운문체로 보기 어렵다.

② “장돌뱅이”라는 옛 생활의 낱말을 사용하여 운율을 만든다.

③ 고개를 넘는 긴 여정을 압축하여 전하는 것이 운문체의 판단 근거이다.

④ “고개 넘으면”과 “~이요”의 반복이 리듬을 만든다.

Q29 다음 대사 속 방언의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앉으이소”는 이 인물이 쓰는 지역 말투이다.) 마을 사람은 발을 다친 여행자에게 “여기 좀 앉으이소”라고 말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 주고 젖은 수건을 내밀었다.

① 지역 말투를 익살스럽게 제시하여 여행자의 다친 모습을 풍자한다.

② “앉으이소”라는 말은 거친 비속어로, 방문객을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지역 말투와 행동이 현장감과 다정한 응대를 드러낸다.

④ 의자와 수건을 주는 행동은 지역 말투의 무례함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동이다.

Q30 거친 표현이 이 장면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젠장, 또 내 차례만 건너뛰었어.” 다빈이 번호표를 구겼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큰 걸음으로 다가갔다.

① 거친 말투로 성급한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이름 붙여 설명한다.

② “젠장”이라는 표현에서 안내 데스크를 비난하는 서술자의 냉소가 드러난다.

③ 차례가 건너뛰어진 데 대한 불만과 거친 태도를 드러낸다.

④ 차례를 놓친 일을 가볍게 농담하여 안내 직원과 친근한 관계를 드러낸다.

Q31 **감각적 표현과 어조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가) 얇은 달빛이 빈 운동화의 젖은 끈 위에 머물렀다.
(나) 그렇게 오래 기다린 아이에게 인사 한마디도 없었다니, 서운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① (가)는 시각적 묘사, (나)는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② (가)의 “머물렀다”에서 서술자의 안타까운 평가가 직접 드러난다.

③ (나)는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전하므로 서술자의 태도가 아니라 인물의 심리 설명이다.

④ (가)는 기다림의 긴 시간을 짧게 정리한 요약적 제시이다.

Q32 **문체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천천히 걸었다. 골목 끝은 어두웠다. 누구의 발소리도 없었다. 멀리서 철문 하나가 닫혔다.

① 이 부분의 문체만으로 실제 작가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다.

② 짧고 간명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③ 어둠과 발소리의 부재가 골목의 분위기를 만든다.

④ 문장이 짧으므로 긴 시간의 사건을 요약한 것이 확실하다.

웃음·비판과 어조 · Q33~Q40

Q33 **이 장면의 풍자가 비판하는 모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장은 “모두에게 열린 모임”이라고 쓴 현수막을 달았다. 그러나 입구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칭찬하는 글을 낸 사람에게만 입장표를 주었다.

① 개방을 약속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모순

② 회장이 칭찬을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모순

③ 모임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와 글로 홍보하는 방법 사이의 모순

④ 현수막에는 회장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입장표에는 쓴 모순

Q34 이 장면의 웃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찾느라 방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다. 손녀가 "그 불빛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손을 내려다보았다. 둘은 웃었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외투를 챙겨 주었다.

① 손전등을 찾는 행동으로 할아버지의 이기심을 비판하는 풍자가 중심이다.

② 손녀의 재치 있는 말은 할아버지의 무능을 차갑게 낮추는 냉소이다.

③ 외투를 챙기는 행동은 서술자가 손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 설명하는 말하기이다.

④ 손에 든 물건을 찾는 실수와 재치 있는 말이 친근한 웃음을 만든다.

Q35 인물을 희화화한 구체적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사 책임자는 이름표가 커야 위엄이 선다며 가슴을 다 덮는 이름표를 달았다. 정작 인사할 때는 이름표 모서리가 턱을 밀어 올려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

낱말 풀이 위엄: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하는 엄숙한 태도나 힘.

① 위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인물의 독백으로 길게 펼친다.

② 턱을 올리는 행동을 통해 주민을 내려다보려는 의도적인 위압을 보여 준다.

③ 과장된 이름표가 인사를 가로막게 그린다.

④ 인사를 못한 처지를 주변 인물이 감싸 주는 해학을 중심으로 한다.

Q36 풍자와 희화화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약속한 심사위원은 자기 조카에게만 특별 점수를 주었다. 비밀 표시를 감추겠다며 팔보다 긴 소매를 입고 왔지만, 소매 끝에 "조카 만점"이라고 쓴 쪽지가 매달려 있었다.

① 희화화가 불공정한 심사 태도의 풍자에 쓰인다.

② 조카를 챙기는 마음을 소매의 과장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해학이 중심이다.

③ 심사위원이 조카를 편들었다고 직접 설명하므로 우스운 모습을 그리는 방법은 쓰이지 않는다.

④ 소매의 과장된 크기를 보고 심사위원의 능숙한 은폐를 칭찬하게 한다.

Q37 **서술자의 냉소적 어조를 판단할 근거는?**

위원은 또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 약속은 이번에도 종이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입만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①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위원의 사정을 안타깝게 감싸는 태도가 드러난다.

② 실행하지 않는 위원을 “입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차갑게 비웃는다.

③ “입만 부지런한”은 위원의 성실한 실행력을 인정하여 칭찬하는 표현이다.

④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위원 자신의 자책이 직접 대사로 제시된다.

Q38 **반어적 어조의 근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안내인은 약속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나타났다. 참으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

① 안내인의 행동을 차갑게 비판하므로 칭찬 표현과 속뜻 사이의 관계는 살필 필요가 없다.

② 시간을 어긴 행동을 제시한 뒤 반대되는 칭찬으로 비꼰다.

③ “귀하게”는 늦은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서술자의 실제 칭찬이다.

④ 마지막 문장은 안내인이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도록 덧붙인 변명이다.

Q39 **두 표현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할머니는 과자를 몰래 먹다 입가에 부스러기를 묻힌 아이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 흔적도 없이 먹었구나.” 아이도 웃었다.
(나) 남을 이용하고도 자랑을 늘어놓는 그는, 남의 등에 올라타야만 높아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① (가)는 아이가 흔적을 감춘 솜씨를 칭찬하고, (나)는 능력 있는 인물에 대한 반어적 칭찬이다.

② (가)는 아이를 비난하는 냉소이고, (나)는 잘못을 감싸 주는 해학이다.

③ (가)와 (나)는 모두 겉으로 칭찬하면서 속으로 비판하는 반어이다.

④ (가)는 반어가 친근한 웃음에 쓰이고 (나)는 차갑게 낮추어 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Q40 **다음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촌장은 “검소함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며 황금 테두리의 검소상 상패를 주문했다. 상패가 너무 무거워 두 사람이 들어 올려야 했다. 그 앞에서 촌장은 자기 혼자 들었다고 사진을 찍게 했다.

낱말 풀이 촌장: 마을을 대표하여 일을 맡은 사람. 상패: 상을 받았음을 나타내어 주는 판 모양의 물건.

① 황금 테두리의 상패는 검소함을 내세운 말과 어긋난다.

② 지나치게 무거운 상패와 거짓 자세가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③ 사진 속 겉모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과장된 상패와 우스운 자세는 촌장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는 해학이 중심임을 보여 준다.

짧게 설명하기 · Q41~Q44

Q41 **(가)와 (나)에서 두려움이 전달되는 통로를 각각 쓰고, (나)만으로 관찰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가) 해리는 빈 의자를 보고 친구가 떠났을까 두려웠다.
(나) 해리는 빈 의자를 보았다. “친구가 떠났을까 봐 두려워.” 그가 말했다.

구분	감정이 전달되는 통로
(가)	
(나)	

(나)가 속마음을 직접 알려 주는지에 대한 판단과 근거: _____

Q42 **서술자와 초점 인물을 구별하고, 독자에게 아직 알려 주지 않은 정보 한 가지를 쓰세요.**

조건 이 장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연서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전합니다.

연서는 바닥에 놓인 젖은 모자를 보았다. 오빠가 돌아왔을까 기대했다. 모자를 누가 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술자: _____

초점 인물과 근거: _____

아직 알려 주지 않은 정보: _____

Q43 **(가)와 (나)가 각각 무엇을 요약하는지 구별하고, (다)는 문장이 짧아도 긴 시간을 압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쓰세요.**

(가) 수호는 사소한 약속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 수호는 십 년 동안 여러 공장에서 기계를 고쳤다.
(다) 나사가 멎었다. 손이 멎었다. 수호는 나사를 반 바퀴 되돌렸다.

(가)가 설명하는 것: _____

(나)가 압축한 것: _____

(다)의 판단과 근거: _____

Q44 **풍자가 비판하는 모순과 희화화에 쓰인 표현을 각각 쓰고, 마지막 문장의 겉으로 한 말(표면적 의미)과 속뜻(실제 의미)을 구별하세요.**

평등을 외치던 주인은 자기 의자만 탑처럼 높였다. 정작 앉고 나니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내려올 때마다 사람을 불러야 했다. 참으로 남과 같은 높이에서 사는 분이었다.

비판하는 모순: _____

희화화한 표현: _____

겉으로 한 말: _____

속뜻: _____

종합 적용

자료 A. 사진 밖의 손 · Q45~Q48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낱말 풀이 공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기여한 노력이나 성과. 기록부: 일의 내용과 진행을 적어 둔 책.

(가) 나는 동네 축제의 전시대를 혼자 완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개막식에서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가슴이 부풀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모든 박수가 내 몫 같았다.



개막식에서 말하는 나.

(나) 준비 첫날의 **기록부**에는 연두가 나무판 열 장을 자르고 민석이 받침을 조립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안내판의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날 내가 쓴 글씨가 전시대의 얼굴이었으니, 내 **공로**가 가장 크다고 여겼다. 받침이 없으면 판을 세울 수 없다는 민석의 말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다) 개막 전날에는 나사가 빠져 전시대 한쪽이 기울었다. 나는 손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뒤로 물러섰다. 연두가 판을 받치는 동안 민석이 무릎을 꿇고 나사를 다시 조였다. "이제 놓아도 돼." 민석의 말에 연두가 손을 뗐다. 나는 곧게 선 전시대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라) 사진을 보니 전시대와 나만 또렷했다. 나는 그 사진이 모든 일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진 밖에 남은 두 사람의 손을 떠올리자 자꾸 눈길이 가장자리로 갔다. 내가 한 일을 작게 말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났다. 그래서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스스로 인정했다.

(마) 다음 날 나는 전시대의 안내판 아래에 준비한 사람들의 이름과 일을 적었다. 내 글씨도, 연두의 나무판도, 민석의 받침과 나사도 적었다. 연두는 한동안 안내판을 보다가 "이번에는 사진이 없어도 알겠네"라고 말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찍자고 하지 않았다.

Q45 **자료 A의 서술자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두와 민석의 행동까지 알려 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마음을 직접 전한다.

② 공동 작업을 지켜본 "나"가 두 친구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하는 관찰자이다.

③ 중심인물인 "나"가 자기 잘못과 변화를 전한다.

④ 사진 밖의 손을 떠올린 (라)부터 연두가 자기 경험을 들려주는 서술자가 된다.

Q46 **"혼자 완성했다"는 말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가 안내판에 글씨를 썼다는 사실 자체

② 사진에 "나"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 과정이 확인됨

③ 기록부의 역할 분담과 연두·민석이 전시대를 고치는 행동

④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므로 실제로 모두 "나"만 일했다고 확인함

Q47 **(라)를 읽은 독자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안의 동기를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이름을 생략한 행동도 타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자랑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면서 기억되고 싶은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

③ 불안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처음에 공로를 독점한 평가도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④ 앞의 자기평가를 믿기 어려우므로 기억되고 싶다는 고백에도 공감할 근거가 사라진다.

Q48 **(가)~(마)를 끝까지 읽었을 때, 서술자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처음의 "혼자 완성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지만, 스스로 과장을 인정한 뒤 적은 기록은 앞의 사실과 맞는다.

② 처음에 과장했으므로 마지막에 적은 이름과 일도 믿기 어렵다.

③ 불안을 고백했으므로 처음의 "혼자 완성했다"는 말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사진을 다시 찍자고 하지 않은 행동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계속 숨기려 한다는 근거이다.

자료 B. 닫힌 연습실 · Q49~Q52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낱말 풀이 반주: 노래나 연주에 맞추어 곁들이는 연주. 문턱: 문 아래에 가로로 놓인 부분.

(가) 저녁의 연습실 복도는 조용했다. 소현은 악보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섰다. 공연에서 **반주**를 한 번 틀린 뒤로 안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 문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의 의자인지는 소현에게 보이지 않았다.



닫힌 문 앞에 선 소현.

(나) "그 부분은 다시 해야겠어."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소현은 봉투를 세게 쥐었다. 틀린 연주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안의 사람들이 어떤 악보를 펴고 있는지 소현은 알 수 없었다. 봉투 끝이 구겨지는 소리가 복도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 잠깐의 웃음소리가 났다. 소현은 자신의 실수를 웃는 것 같아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이어 들리는 말은 문이 막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문턱** 앞에서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소현아, 밖에 있니?"

(라) 소현이 문을 열자 대호가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것은 악보가 아니라 행사 순서표였다. "네 이름을 잘못 적었어. 인쇄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야." 대호가 말했다. 소현은 종이에 쓰인 다른 이름과 지우개 자국을 보았다. 아까의 말이 연주를 가리켰다는 자기 생각에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 소현은 봉투에서 악보를 꺼냈다. 대호가 옆으로 의자를 당겼다. 소현은 문 앞에서 힘주어 쥐었던 손을 폈다. 손바닥에 남은 종이 자국이 조금씩 옅어졌다. 안에서 왜 웃었는지는 여전히 묻지 못했다.

Q49 **자료 B에서 독자에게 정보가 주어지는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현이 모르는 대호의 숨긴 마음을 처음부터 모두 알려 준다.

② 소현이 보고 듣고 생각한 범위를 따라 정보가 제시된다.

③ 서술자가 감정은 모두 생략하고 동작만 나열한다.

④ 소현이 자신의 경험을 “나”로 직접 들려준다.

Q50 **(나)~(라)의 정보 제한과 공개가 만드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 안 사람의 의도를 먼저 알려 주어 소현의 추측이 틀렸음을 처음부터 확인하게 한다.

② 문 안의 정보를 늦게 밝혀 소현의 추측을 따라간 뒤 그 근거를 다시 살피게 한다.

③ 닫힌 문을 유지하여 소현의 첫 추측을 끝까지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④ 서술자가 대호의 악의를 사실로 증명하여 갈등을 확정한다.

Q51 **(다)와 (라)를 비교하여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현이 두려워했으므로 실제로 모두가 연주를 비난했다.

② 행사 순서표가 나왔으므로 공연에서 반주를 틀린 일도 없었다.

③ 소현은 새 정보에 따라 처음의 추측을 수정한다.

④ 오해가 드러났으므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고의로 거짓말했다.

Q52 **자료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현의 생각은 바뀌어도 서술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야기 밖에 있다.

② 문을 열기 전에는 소현이 종이의 내용을 볼 수 없다.

③ 대호가 의자를 당기는 행동은 제시된다.

④ 웃음의 이유까지 마지막에 확실하게 밝혀진다.

자료 C. 돌아온 작업대 · Q53~Q56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낱말 풀이 견습: 일을 배우며 익힘. 대패: 나무의 표면을 얇게 깎는 연장.

(가) 유건은 삼 년 동안 가구 공방의 **견습**으로 일했다. 처음에는 나무를 나르고, 다음에는 표면을 다듬고, 마지막 해에는 작은 의자를 만들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의 손바닥에는 새 굳은살이 생겼다.

(나) 공방을 떠나는 날, 스승은 낡은 **대패**를 작업대에 놓았다. 유건이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나무 틈에 남은 기름 냄새가 손끝 가까이 올라왔다. 대패의 모서리에는 검게 닳은 자국이 있었다.



낡은 대패에 손을 얹다.

(다) "이걸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손에 맞게 오래 써라." 스승이 말했다. 유건은 대패를 천으로 감쌌다. 매듭을 묶었다. 다시 풀었다. 천 한 겹을 더 둘렀다.

(라) 기름 냄새. 처음 이곳에 들어온 날에도 났지. 문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작업복,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의 손잡이. 저 손잡이는 왜 늘 차가웠을까. 지금 이 대패는 따뜻한데. 유건의 손끝에 낡은 나뭇결이 닿았다.

(마) 그는 대패를 가방에 넣고 공방을 나섰다. 작업대 위에는 천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빛이 빈 자리를 천천히 덮었다.

Q53 **(가)와 (나)~(다)의 제시 방식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가)는 삼 년의 과정을 압축하고 (나)~(다)는 떠나는 날의 한순간을 펼친다.

② (나)~(다)는 대패를 주고받은 결과를 요약하여 떠나는 날의 시간을 빠르게 건너뛴다.

③ (가)와 (다)는 성격을 직접 설명하여 유건의 성실함을 말하기로 제시한다.

④ (가)는 여러 계절을 각각의 대화 장면으로 보여 주어 수련 과정을 느리게 펼친다.

Q54 **(라)의 의식이 이어지는 계기를 가장 적절하게 짚은 것은?**

① 기름 냄새에서 과거의 기억과 감각이 연상된다.

② 기름 냄새 뒤에 아버지가 나타나 버스에서 한 말을 유건에게 직접 전한다.

③ 현재의 냄새와 손의 감각을 일정한 공간 순서로만 배열하여 공방 구조를 설명한다.

④ 수련 생활의 삼 년을 일어난 순서대로 요약하여 시간의 흐름을 정리한다.

Q55 **(다)의 짧은 문장들이 하는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작은 동작을 각각 드러내 대패를 감싸는 순간에 주목하게 한다.

② 비슷한 동작을 되풀이하여 여러 날의 포장 연습을 압축해 전한다.

③ 짧은 문장으로 유건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직접 이름 붙여 설명한다.

④ 한 문장마다 행동을 마무리하므로 대패를 받은 뒤의 긴 기간을 빠르게 건너뛴다.

Q56 **(마)의 표현을 지문 근거 안에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빈 작업대를 비추는 빛으로 스승이 유건을 원망하는 속마음을 직접 설명한다.

② 아침빛과 빈 작업대의 시각적 장면으로 떠난 뒤의 조용한 분위기를 만든다.

③ 아침빛을 따라 서술자가 유건의 속마음에서 스승의 속마음으로 초점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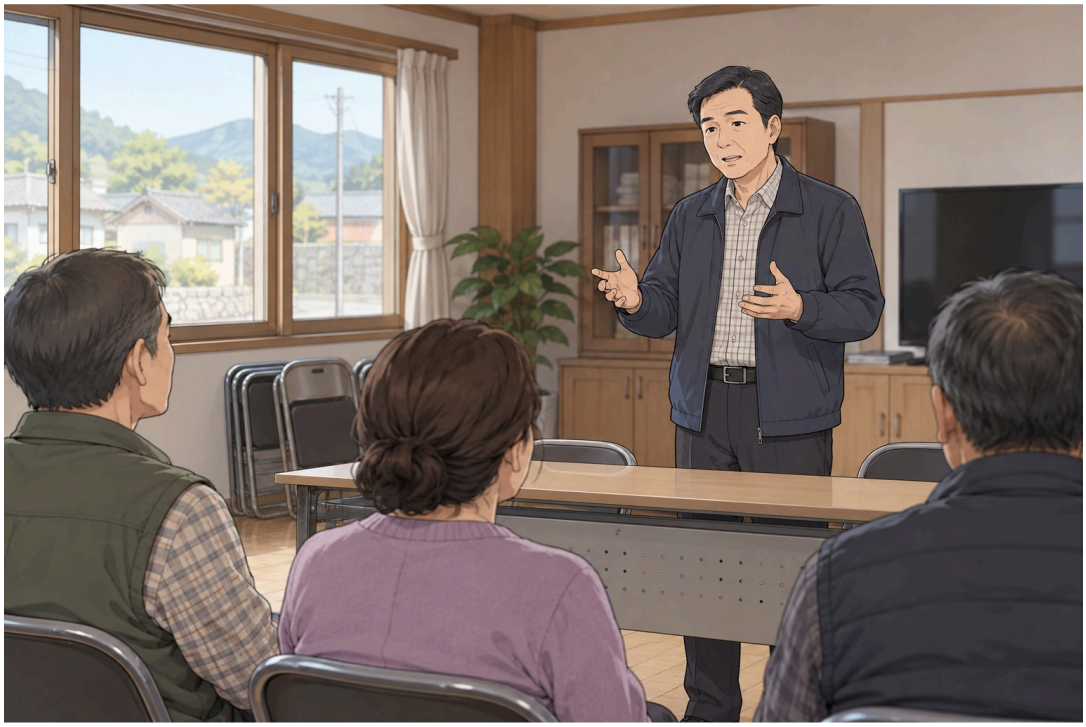
④ 작업대가 비었다는 말로 유건이 돌아오지 않을 미래를 확정하여 요약한다.

자료 D. 작은 표지판의 큰 자리 · Q57~Q60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낱말 풀이 허례: 실속 없이 겉모양만 꾸미는 예절이나 형식. 현판: 건물이나 공간의 이름 등을 써서 거는 판.

(가) 마을 회관의 새 책임자는 첫 회의에서 **허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주민이 편하게 쓰는 회관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큰 **현판**부터 주문했다. 주민들이 읽기 편하려면 자기 이름이 멀리서도 보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첫 회의에서 말하는 책임자.

(나) 현판은 출입문보다 넓었다. 책임자는 현판을 옆으로 돌리면 들어간다며 직접 들고 앞장섰다가 현판과 문틀 사이에 끼었다. 한 팔은 회관 안에, 다른 팔은 마당에 남았다. 주민 둘이 현판을 뒤로 당기자 그는 겨우 빠져나왔다. 덕분에 출입문이 얼마나 좁은지 몸소 증명한 셈이었다.

(다) 그토록 주민을 배려하는 분이니, 주민들이 현판을 돌아 먼 뒷문으로 다니게 된 일도 깊은 뜻이 있었으리라. 현판은 결국 앞문을 가린 채 세워졌다. 책임자는 자기 이름이 가려질까 봐 안내문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주민의 편의는 입에서만 넓고 문 앞에서는 한없이 좁았다.

(라) 청소를 맡은 아저씨는 뒤로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었다. 자기도 쉬겠다며 앉으려다 허리에 걸어 둔 빗자루가 먼저 의자에 기대자 “이 녀석이 나보다 먼저 쉬겠네”라고 말했다. 곁에 있던 아이가 빗자루를 받아 주었다. 아저씨는 웃으며 아이 옆에 앉았다.

(마) 다음 회의에서 주민들은 현판을 벽의 빈 곳으로 옮기고 앞문을 열었다. 현판에 크게 쓰인 책임자의 이름 아래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문 앞을 비워 주세요.” 책임자는 종이를 떼려다 주민들의 시선을 보고 손을 내렸다.

Q57 **자료 D의 중심적인 풍자가 비판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민의 편의를 지키려 했으나 문이 좁아 뜻을 이루지 못한 선의

② 책임자의 이름이 가려지도록 현판을 옮긴 주민들의 무례한 태도

③ 회의 형식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는 검소한 태도

④ 주민을 위한다며 자기 이름 과시를 앞세우는 태도

Q58 **(나)와 (다)의 표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는 희화화로 책임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다)는 그 배려를 실제로 칭찬한다.

② (나)는 서술자의 평가로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다)는 인물 대사로 비판을 대신한다.

③ (나)는 우스운 행동으로 비판하고, (다)는 책임자가 자기 의도를 설명하는 대사이다.

④ (나)는 끼인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다)는 겉으로 한 칭찬의 말로 불편을 만든 행동을 비꼰다.

Q59 **(라)의 웃음과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빗자루가 먼저 쉰다는 익살과 아이의 도움이 친근한 웃음을 만든다.

② 빗자루가 먼저 쉰다는 농담은 앞부분의 책임자를 비꼬는 풍자이다.

③ 빗자루를 사람처럼 말한 것은 아저씨 자신을 차갑게 깎아내리는 냉소적 어조이다.

④ 아이가 빗자루를 받아 준 것은 아저씨의 실수를 비웃으며 공격하는 행동이다.

Q60 **자료 D를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마)에서 앞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② 책임자의 말과 현판을 배치한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③ 마지막 행동으로 책임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확정할 수 있다.

④ (다)의 “깊은 뜻”은 맥락상 책임자의 배려를 그대로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④	Q21	②	Q41	해설 참조
Q02	①	Q22	③	Q42	해설 참조
Q03	①	Q23	③	Q43	해설 참조
Q04	②	Q24	②	Q44	해설 참조
Q05	③	Q25	①	Q45	③
Q06	②	Q26	④	Q46	③
Q07	②	Q27	④	Q47	②
Q08	③	Q28	④	Q48	①
Q09	④	Q29	③	Q49	②
Q10	②	Q30	③	Q50	②
Q11	①	Q31	①	Q51	③
Q12	②	Q32	④	Q52	④
Q13	④	Q33	①	Q53	①
Q14	③	Q34	④	Q54	①
Q15	①	Q35	③	Q55	①
Q16	②	Q36	①	Q56	②
Q17	③	Q37	②	Q57	④
Q18	④	Q38	②	Q58	④
Q19	①	Q39	④	Q59	①
Q20	③	Q40	④	Q60	③

문항별 해설

A01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판단 대사 속 "나"와 행동을 전하는 목소리를 구별합니다.

① **× 틀림** **대사 속 "나"가 자신의 결정을 밝히므로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신의 결정을 말하는 것은 유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밖의 서술자는 유라와 연수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② **× 틀림** **유라의 결정을 전하므로 서술자는 유라의 말하지 않은 생각도 직접 설명한다.**

결정은 인용된 대사로 제시됩니다. 말하지 않은 생각을 서술자가 설명한 문장은 없습니다.

③ **× 틀림** **연수의 행동으로 문장이 바뀌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연수로 바뀐다.**

인물을 바꾸어 서술하는 것과 서술자가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연수도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④ **○ 맞음** **대사 속 "나"는 유라를 가리킨다.**

"나"는 유라가 한 말 안에 있습니다. 대사 밖에서는 유라와 연수의 행동을 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1, E05 **문제로 돌아가기** Q01

A02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결국 내가 발표대에 다시 올라 사실을 밝혔고

판단 잘못과 고백, 변화의 중심인 "나"가 자신의 일을 전합니다.

① **○ 맞음** **1인칭 주인공 시점 — 잘못을 저지르고 고백하는 "나"가 불안을 직접 전하여 내면이 생생하다.**

설계를 가로채고 고백하는 중심인물 "나"가 불안까지 직접 들려주므로 시점과 효과가 모두 맞습니다.

② **× 틀림**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가 친구를 지켜보며 친구의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여 여운을 남긴다.**

관찰자 시점의 효과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줄거리의 중심은 친구가 아니라 "나"의 잘못과 변화입니다.

③ **× 틀림** **전지적 작가 시점 — 작품 밖 서술자가 "나"와 친구의 숨은 마음을 알려 주어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전지적 시점의 효과 설명은 가능하지만 작품 안의 "나"가 자신의 불안을 전하는 줄거리와 맞지 않습니다.

④ × 틀림 **3인칭 관찰자 시점 —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전하여 독자가 속마음을 상상하게 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줄거리는 “나”가 자기 불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2 문제로 돌아가기 Q02

A03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나는 그날 그의 짐을 들어 주며 그의 일을 기록했다.

판단 일부 사건에 참여하는 것과 줄거리의 중심인 것을 나눕니다.

① ◯ 맞음 **우편배달부의 일을 관찰하여 전하는 이야기 속 서술자이다.**

짐을 들어 주지만 주요 사건과 선택의 중심은 우편배달부입니다.

② × 틀림 **우편배달부를 오래 지켜보았으므로 작품 밖에서 그의 속마음을 직접 아는 서술자이다.**

오래 관찰한 사실이 작품 밖 위치나 속마음을 직접 아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짐을 들어 준 인물입니다.

③ × 틀림 **짐을 들어 준 날의 자기 행동을 중심으로 십 년의 성장을 들려주는 주인공이다.**

십 년의 주요 사건은 우편배달부의 일입니다. “나”의 짐 들기는 중심인물을 돕는 행동입니다.

④ × 틀림 **짐을 들었으므로 우편배달부를 대신한 주인공이다.**

한 행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중심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3 문제로 돌아가기 Q03

A04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속으로는 손님이 자신의 실수를 알아볼까 두려웠다.

판단 말하지 않은 두려움을 직접 전달합니다.

① × 틀림 **웃는 얼굴과 문을 여는 행동을 이어 제시하여 두려움의 원인을 독자가 추측하게 한다.**

독자가 행동에서 추측하기에 앞서 “속으로는 … 두려웠다”라고 서술자가 마음을 직접 알려 줍니다.

② ◯ 맞음 **말하지 않은 두려움을 직접 전한다.**

웃는 행동과 달리 속마음까지 서술자가 알려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③ × 틀림 **손님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는 해온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온의 직접 대사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두려움을 서술자가 전합니다.

④ ✕ 틀림 **손님이 해온의 표정을 읽어 낸 내용을 해온의 시선으로 전달한다.**

손님은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표정을 읽어 낸 내용이 아니라 직접적인 심리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4, E05 **문제로 돌아가기** Q04

A05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떨어질까 봐 무서워." 그가 말했다.

판단 두려움은 관찰 가능한 대사로 제시됩니다.

① ✕ 틀림 **옆 사람의 속마음과 도윤의 속마음을 번갈아 직접 보여 준다.**

옆 사람은 물병을 건넬 뿐입니다. 두 사람의 내면을 번갈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② ✕ 틀림 **서술자가 도윤도 모르는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한다.**

도윤 자신이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도 모르는 원인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③ ◯ 맞음 **도윤의 두려움이 그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감정을 밝힌 주체는 도윤입니다. 서술자는 들을 수 있는 말과 보이는 행동을 전합니다.

④ ✕ 틀림 **감정이 등장하므로 관찰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전할 수 없다.**

감정은 인물의 말로도 전달됩니다. 감정의 등장과 직접 내면 서술을 혼동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5 **문제로 돌아가기** Q05

A06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다음 날 그가 "다친 동생이 걱정돼서 먼저 갔어"라고 말했다.

판단 "나"는 나중에 들은 말로 지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① ✕ 틀림 **"나"는 지훈이 운동장을 떠나기 전부터 이유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몰랐고 다음 날에야 알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 맞음 **지훈의 말을 나중에 듣고 알게 된 마음을 전한다.**

정보를 얻은 경로와 시점이 밝혀져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언급해도 전지적 서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 틀림 **남의 마음을 아는 순간 서술자는 이야기 밖으로 바뀐다.**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늘었다고 서술자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④ ✕ 틀림 **지훈의 말을 인용했으므로 지훈이 전체 이야기의 서술자가 된다.**

지훈은 인용된 말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전체 사건은 여전히 "나"가 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2, E04 문제로 돌아가기 Q06

A07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그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판단 부분에 드러난 정보와 작품 전체의 시점 확정을 구별합니다.

① **× 틀림** **“그”의 행동을 전하므로 작품 전체가 3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외적 행동만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속마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② **○ 맞음** **이 부분은 관찰 가능한 행동·소리를 전하지만 작품 전체의 시점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볼 수 있는 행동과 들리는 소리만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내면을 전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③ **× 틀림** **소리를 들은 감각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인물의 말하지 않은 심리까지 설명한다.**
공이 튀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소리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은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④ **× 틀림** **“그”가 먼저 등장하므로 작품 전체에서 그의 눈과 생각에만 맞추어 서술한다.**
등장 순서는 초점의 지속적 제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으로 작품 전체의 정보 전달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1, E04, E05 문제로 돌아가기 Q07

A08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둘은 각자의 걱정을 말하지 않은 채 걸었다.

판단 이야기 밖의 목소리가 두 인물의 숨은 마음을 모두 전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재인이 걱정한 마음과 묻지 않은 행동이 따로 제시된다.**
“걱정했지만 묻지 않았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을 구별하여 전합니다.

② **○ 맞음** **하람과 재인이 서로 밝히지 않은 마음을 독자는 알 수 있다.**
서술자가 두 내면을 모두 알려 주므로 독자는 인물들이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인물이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제시되지 않는다.**
하람의 숨기고 싶은 마음과 재인의 걱정이 직접 제시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④ ◯ 맞음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속마음을 알려 준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두 인물의 속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4, E05 **문제로 돌아가기** Q08

A09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누가 옮기는지는 몰랐다.

판단 서하의 감각과 내면을 전하면서 그가 모르는 정보는 제한합니다.

① × 틀림 **서하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1인칭 서술이다.**

장면을 전하는 목소리는 이야기 밖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하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이라고 서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 틀림 **서하가 모르는 정체까지 독자에게 먼저 알려 준다.**

옮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문에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③ × 틀림 **창고의 소리를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하의 침착한 태도가 중심이다.**

서하가 자기 물건이 사라질까 불안했다고 직접 설명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함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④ ◯ 맞음 **서하의 불안은 알려 주고, 소리의 주체는 밝히지 않는다.**

한 인물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에 한정한 서술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문제로 돌아가기** Q09

A10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손을 흔들어도 될까, 지수는 망설였다.

판단 서술자는 계속 작품 밖에 있습니다. (가)는 지수의 시선과 망설임을, (나)는 경호의 시선과 기대를 전하므로 초점 인물은 바뀝니다.

① × 틀림 **서술자가 지수에서 경호로 바뀌어 두 사람이 번갈아 직접 말한다.**

두 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밖의 목소리가 전합니다.

② ◯ 맞음 **서술자는 유지되지만 초점 인물은 지수에서 경호로 달라진다.**

(가)와 (나) 모두 “지수는”, “경호는”으로 부르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합니다. 보고 생각하는 중심은 지수에서 경호로 옮겨 갑니다.

③ ✕ 틀림 **두 인물이 같은 강을 보므로 초점 인물도 한 명으로 유지된다.**

보는 대상이 같아도 보는 사람과 생각하는 중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 틀림 **(나)는 지수가 난간에서 배를 바라본 모습을 계속 전하므로 초점이 유지된다.**

(나)에서는 배 위의 경호가 난간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므로 보는 중심이 달라집니다.

다시 볼 설명 E07 **문제로 돌아가기** Q10

A11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이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판단 서술자의 해석과 동생의 말·반응이 어긋납니다.

① ◯ 맞음 **종이접기라는 해석이 성적표를 걱정하며 우는 동생의 반응과 맞지 않는다.**

동생의 말과 울음은 놀이보다 성적표에 대한 걱정을 뒷받침합니다.

② ✕ 틀림 **동생의 울음을 세밀하게 전하므로 종이접기라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반응을 전한 사실과 그 반응을 해석한 판단은 다릅니다. 울음과 성적표 걱정은 놀이로 읽기 어렵게 합니다.

③ ✕ 틀림 **어린 서술자의 추측이므로 동생이 성적표를 찢었다는 보고부터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종이를 찢은 이유의 해석입니다. 추측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행동 보고까지 거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④ ✕ 틀림 **엄마가 속상하리라는 동생의 말을 서술자의 종이접기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성적표를 보고 속상해할 엄마를 걱정하는 말은 종이접기 놀이보다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뒷받침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10 **문제로 돌아가기** Q11

A12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오늘도 겨우 스무 분 늦었을 뿐이다.

판단 늦은 사실과 늦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를 나누어 읽습니다.

① ✕ 틀림 **늦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늦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도 타당하다고 본다.**

스무 분 늦었다는 구체적인 보고는 오히려 늦지 않는다는 평가와 어긋납니다.

② ◯ 맞음 **늦었다는 사건 보고를 근거로 늦지 않는다는 자기평가를 의심한다.**

스무 분 늦었다는 말은 지각하지 않는다는 자랑과 충돌합니다. 사실과 평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겨우”라고 했으므로 스무 분은 지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인다.**

“겨우”는 지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늦었다는 사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④ ✕ 틀림 **자기평가가 어긋나므로 친구들이 발표를 끝냈다는 보고도 과장된 변명으로 판단한다.**

발표를 끝냈다는 보고를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고와 자기평가를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8 **문제로 돌아가기** Q12

A13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남의 땀을 자기 명예로 바꾸려 한 그 욕심은 추했다.

판단 속마음을 아는 것과 비판적 평가가 함께 나타납니다.

① ✕ 틀림 **기범을 비판하는 서술이므로 초조함은 독자가 행동에서 짐작해야 하는 정보이다.**

“초조했다”라고 서술자가 직접 알려 주므로 독자가 행동만으로 짐작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② ✕ 틀림 **기범이 스스로 자기 욕심을 추하다고 말한다.**

해당 평가는 기범의 대사나 생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③ ✕ 틀림 **기범의 내면을 알므로 그의 행동을 옳다고 감싸 준다.**

마음을 안다는 사실을 호의와 혼동했습니다. 서술자는 욕심을 비판합니다.

④ ◯ 맞음 **기범의 초조함을 알면서 그의 행동은 비판한다.**

“초조했다”는 내면 정보이며 “욕심은 추했다”는 부정적 평가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9, E11 **문제로 돌아가기** Q13

A14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다시 그 일을 겪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해진다.

판단 추가된 내면 정보가 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근거가 됩니다.

① ✕ 틀림 **두려웠던 기억이 제시되므로 모임을 피한 행동은 옳은 선택이라는 평가도 확립된다.**

두려움은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게 하지만 그 선택이 옳다는 평가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② ✕ 틀림 **수민의 속마음이 제시되어 독자가 서술자의 정보 자체를 덜 믿게 된다.**

앞뒤 정보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추가된 사정은 인물 이해를 돕는 것이며 서술자의 불신 근거가 아닙니다.

③ ◯ 맞음 **추가된 내면 정보는 수민의 회피를 이해할 근거가 된다.**

행동만 알 때보다 사정과 내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감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④ **× 틀림** **앞에서는 수민이 자기 일을 전하고 뒤에서는 작품 밖 서술자로 바뀌어 거리가 가까워진다.**
내용은 행동 정보에서 기억·두려움으로 넓어질 뿐 서술자가 바뀌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0 **문제로 돌아가기** Q14

A15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을까 봐 잠들지 못했다.

판단 자기평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대한 이해는 함께 가능합니다.

① **○ 맞음** **독자는 "나"의 과장된 평가를 의심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불안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단원들의 행동은 과장을 드러내고 밤의 불안은 인물의 사정을 알려 줍니다.

② **× 틀림** **불안을 이해하면 공연을 혼자 구했다는 말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처지에 대한 이해가 과장된 평가의 사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③ **× 틀림** **자신의 불안을 솔직히 말했으므로 공연을 구했다는 자기평가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불안의 솔직한 고백과 공로에 대한 과장은 각각 다른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른 단원들이 수습한 일은 남아 있습니다.

④ **× 틀림** **공로의 과장이 드러나므로 밤에 잠들지 못했다는 보고도 꾸며 낸 것으로 읽어야 한다.**
공로 평가가 과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밤의 불안 보고까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10 **문제로 돌아가기** Q15

A16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발걸음을 돌렸다.

판단 윤재의 추측을 확인된 사실로 넓히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윤재가 듣고 생각한 내용이 장면에서 독자에게 알려 주는 내용이다.**
웃음소리와 그에 대한 윤재의 해석·행동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② **× 틀림** **문 안 사람들이 윤재를 비웃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
"비웃는 것 같아"는 윤재의 추측입니다. 웃는 사람과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③ **○ 맞음** **서술하는 목소리와 보고 듣는 중심을 구별할 수 있다.**
목소리는 이야기 밖에 있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의 중심은 윤재입니다.

④ ◯ 맞음 **윤재가 모르는 웃음의 주체는 독자에게도 제시되지 않는다.**

지문은 문 안 사람을 밝히지 않고 윤재의 제한된 정보만 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E08 **문제로 돌아가기** Q16

A17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참으로 야박한 태도였다.

판단 인물의 마음과 서술자의 평가를 구별합니다.

① × 틀림 **(가)는 서술자의 비난, (나)는 혜주의 후회이다.**

평가 주체를 뒤바꾸었습니다. (나)는 혜주가 후회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 틀림 **“야박한 태도”는 부탁을 거절한 혜주가 자신을 돌아보며 내린 판단이다.**

혜주의 생각으로 인용하거나 연결한 말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태도를 평가하는 서술 문장입니다.

③ ◯ 맞음 **(가)는 심리 설명, (나)는 서술자의 평가이다.**

“마음에 걸렸다”는 혜주의 심리이고 “야박한 태도”는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입니다.

④ × 틀림 **두 부분 모두 인물의 감정을 설명하므로 서술자의 평가와는 구별된다.**

(가)는 마음을 설명하지만 (나)는 행동을 야박하다고 평가합니다. 둘의 말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시 볼 설명 E11 **문제로 돌아가기** Q17

A18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동생에게 책임을 미룬 것은 비겁한 짓이었다.

판단 평가의 단어뿐 아니라 평가하는 주체를 봅니다.

① × 틀림 ㉠

평가하는 말은 있지만 경수의 대사입니다. 서술자의 직접 논평과 다릅니다.

② × 틀림 ㉡

형의 억울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서술자의 판단은 아닙니다.

③ × 틀림 ㉢

봉투를 놓는 행동을 전달할 뿐 행동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④ ◯ 맞음 ㉣

서술자가 책임을 미룬 행동을 “비겁한 짓”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1 문제로 돌아가기 Q18

A19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수아는 팔 년 동안 여러 가게에서 일하며 빚을 모두 갚았다.

판단 둘 다 요약적 제시이지만 정리한 대상이 다릅니다. (가)는 인물의 성격을, (나)는 팔 년의 사건을 정리합니다.

① ○ 맞음 **(가)는 성격의 직접 설명, (나)는 사건 시간의 압축이다.**
(가)는 수아의 성향을 정리하며, (나)는 팔 년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② × 틀림 **(가)는 성격을 행동으로 보여 주고, (나)는 대화를 통해 생활을 펼쳐 보인다.**
(가)는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사건을 정리합니다. 구체적 행동 장면이나 대화가 아닙니다.

③ × 틀림 **(나)는 일한 장소를 제시하므로 시간 요약보다 한 장면의 묘사에 해당한다.**
여러 가게에서 팔 년 동안 일한 과정을 압축했습니다. 특정 순간을 감각적으로 펼친 장면이 아닙니다.

④ × 틀림 **두 문장 모두 팔 년 동안의 일을 압축한다.**
팔 년이라는 기간은 (나)에만 있습니다. (가)는 성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2 문제로 돌아가기 Q19

A20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물방울이 마룻바닥에 둥근 자국을 만들었다.

판단 행동·묘사·대화가 함께 짧은 순간을 구체화합니다.

① × 틀림 **무릎을 쓰는 행동을 제시한 뒤 서술자가 인물의 무모함을 평가한다.**
행동은 나오지만 무모하다는 서술자의 평가는 없습니다.

② × 틀림 **장갑을 벗은 일과 넘어진 일을 정리하여 미루의 성격을 직접 알려 준다.**
대사에서는 넘어질 뻔했다고 했으며 성격을 직접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행동·묘사·대화가 장면을 이룹니다.

③ ○ 맞음 **행동·묘사·대화로 한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친다.**
독자가 도착 직후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제시합니다.

④ × 틀림 **대화가 지난 일을 설명하므로 지금 장면의 행동보다 긴 시간의 압축이 중심이다.**
짧은 대화도 지금 눈앞의 장면을 구성합니다. 오랜 기간을 줄여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볼 설명 E13 문제로 돌아가기 Q20

A21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그럼 둑길로 돌아가자.”

판단 대화가 이동 경로의 결정을 이끕니다.

① ✕ 틀림 **두 사람이 다른 길을 주장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는 갈등을 부각한다.**
잠긴 길의 정보를 듣고 둑길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의견을 맞서는 갈등이 중심이 아닙니다.

② ◯ 맞음 **정보를 나누고 경로를 결정하여 뒤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서쪽 길의 상황을 듣고 둑길을 택한 뒤 실제로 방향을 바꿉니다.

③ ✕ 틀림 **잠긴 길에 관한 대화가 두 사람이 지나온 여정을 요약하여 알려 준다.**
대화는 이미 지나온 여정의 요약이 아니라 다음 이동 경로를 정하는 계기입니다.

④ ✕ 틀림 **인물의 관계만 드러내며 다음 행동과는 관계없다.**
대화로 정한 경로가 뒤의 이동과 직접 연결됩니다.

다시 볼 설명 E13 문제로 돌아가기 Q21

A22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빵 냄새. 저 골목에도 빵집이 있었지.

판단 현재 감각에서 기억과 다른 생각으로 연상이 이어집니다.

① ✕ 틀림 **누나를 떠올린 뒤 운동화 끈을 언급하여 두 인물의 대화를 교차한다.**
누나의 발언은 없고 한 인물의 생각과 감각이 이어집니다.

② ✕ 틀림 **빵집의 냄새와 골목의 위치를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여 공간을 설명한다.**
공간 배치의 체계적 설명이 아니라 냄새에서 기억과 감각으로 생각이 옮겨 갑니다.

③ ◯ 맞음 **냄새에서 옛 골목과 누나의 기억, 현재 발끝의 감각으로 생각이 이어진다.**
연상에 따른 감각·기억·생각의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④ ✕ 틀림 **누나가 돌아오지 않은 까닭을 짧게 정리하여 인물의 처지를 설명한다.**
누나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기억을 불러오는 생각의 흐름을 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4 문제로 돌아가기 Q22

A23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세 계절 동안 마을 사람들은 둑을 보수했다.

판단 시간 범위와 제시 분량을 함께 비교합니다.

① **× 틀림** **(가)는 둑을 보수한 행동을 나열하여 한순간을 구체적으로 펼친다.**
세 계절의 활동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순간을 펼치지 않습니다.

② **× 틀림** **(나)는 문장들이 짧으므로 (가)보다 더 긴 시간을 빠르게 넘긴다.**
문장 길이와 이야기 속 시간 범위를 혼동했습니다. (나)는 짧은 순간에 머뭅니다.

③ **○ 맞음** **(가)는 긴 기간을 압축하고 (나)는 짧은 순간을 여러 동작으로 펼친다.**
세 계절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반면 돌 하나를 끼우는 순간은 여러 문장으로 제시됩니다.

④ **× 틀림** **(나)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여 보수 작업의 이유를 알려 준다.**
손과 삽의 움직임을 보여 줄 뿐 성격이나 작업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2, E15, E17 **문제로 돌아가기** Q23

A24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지난 실수가 떠올라 그는 불안했다.

판단 단순한 심리 설명만으로 의식의 흐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나)는 물웅덩이의 빛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붉은 빛이 떨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② **× 틀림** **(다)는 과거를 떠올린 마음을 설명하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두드러진다.**
기억 때문에 불안했다고 설명할 뿐 감각·기억·생각이 연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펼치지 않습니다.

③ **○ 맞음** **(가)는 사 년의 반복되는 생활을 짧게 압축한다.**
오랜 기간의 반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요약적 제시입니다.

④ **○ 맞음** **넓은 뜻의 서술에는 (나)처럼 장면을 묘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넓게는 이야기 전달 전체를 뜻하므로 묘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2, E13, E14, E15 **문제로 돌아가기** Q24

A25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그날은 말이야

판단 (가)는 말하듯 전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격식 있게 전합니다.

① **○ 맞음** **(가)는 구어체, (나)는 상대적으로 문어체에 가깝다.**
"말이야·놀랐겠니"는 말 건네는 듯하며 "감추지 못하였다"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② **× 틀림** **(가)는 인물끼리 대화하지 않으므로 구어체일 수 없다.**
서술 문장 자체가 말하듯 쓰일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나)는 격식 있는 어미를 사용하므로 수식과 절을 길게 잇는 만연체에 가깝다.**
격식과 문장의 길이는 다른 기준입니다. (나)는 두 개의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④ **× 틀림** **두 글은 같은 사건을 다루므로 문체의 차이는 없다.**
사건이 같아도 어휘와 어미, 문장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6 **문제로 돌아가기** Q25

A26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샜다. 초가 꺼졌다.

판단 짧게 끊는 방식과 길게 이어 펼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① **× 틀림** **(가)는 사건을 짧게 요약하고 (나)는 바람이 분 하루 전체를 압축한다.**
두 부분은 촛불이 꺼지는 장면을 다른 길이의 문장으로 전합니다. 긴 문장이라는 이유로 하루 전체 요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② **× 틀림** **(가)는 행동이 이어져 구어체이고 (나)는 수식이 길어 문어체이다.**
구어체는 말하듯 쓰는 표현을 근거로 합니다. 행동의 나열과 수식 길이는 구어·문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③ **× 틀림** **(가)는 짧은 문장으로 속마음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긴 대사로 성격을 드러낸다.**
(가)는 바람과 촛불의 변화를, (나)는 그 과정을 전합니다. 직접 심리 설명이나 인물의 대사는 없습니다.

④ **○ 맞음** **(가)는 짧게 끊고 (나)는 수식과 절을 길게 잇는다.**
간결체와 만연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장 구성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7 **문제로 돌아가기** Q26

A27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문이 열렸어. 그 애가 왔어.

판단 말하듯 쓰는지와 문장이 짧은지는 다른 기준입니다.

① **× 틀림** **독자에게 말을 거는 어미가 쓰였으므로 길게 이어지는 만연체가 두드러진다.**
말하는 듯한 어미는 구어체의 근거이고 각 문장은 짧게 끊겨 있습니다.

② **× 틀림** **인물 사이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 문장이므로 문어체에 가깝다.**
서술 문장도 “봤지?”, “왔어”처럼 말하듯 쓸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문장이 짧게 끝나므로 격식 있는 문어체의 특징이 나타난다.**
짧은 문장은 간결체의 근거입니다. 이 글의 말투는 격식보다 구어적 느낌을 줍니다.

④ **○ 맞음** **구어체와 간결체의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일상적인 어미로 말하듯 전하면서 짧은 문장을 이어 씁니다.

다시 볼 설명 E16, E17 **문제로 돌아가기** Q27

A28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한 고개 넘으면 구름이요, 두 고개 넘으면 바람이요

판단 비슷한 구조와 말의 반복이 가락을 만듭니다.

① **× 틀림** **행을 나누지 않고 이어 썼으므로 운문체로 보기 어렵다.**
줄바꿈보다 반복되는 문장 구조와 가락이 운문체의 근거입니다.

② **× 틀림** **“장돌뱅이”라는 옛 생활의 낱말을 사용하여 운율을 만든다.**
그 낱말 자체보다 “고개 넘으면”과 “~이요”의 되풀이가 리듬을 만듭니다.

③ **× 틀림** **고개를 넘는 긴 여정을 압축하여 전하는 것이 운문체의 판단 근거이다.**
시간이나 여정의 압축은 제시 방식의 기준이며 운율은 반복과 가락으로 판단합니다.

④ **○ 맞음** **“고개 넘으면”과 “~이요”의 반복이 리듬을 만든다.**
되풀이되는 구조와 어미가 소설의 서술에도 가락을 더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8 **문제로 돌아가기** Q28

A29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그는 의자를 끌어 주고 젖은 수건을 내밀었다.

판단 지역 말투를 도움을 건네는 행동과 연결해 읽습니다.

① **× 틀림** **지역 말투를 익살스럽게 제시하여 여행자의 다친 모습을 풍자한다.**
말투 자체가 풍자의 근거는 아닙니다. 의자와 수건을 주는 행동은 여행자를 배려합니다.

② **× 틀림** **“앉으이소”라는 말은 거친 비속어로, 방문객을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조건에서 지역 말투라고 밝혔고 다정하게 자리를 권합니다. 거친 비속어나 낮추는 태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③ **○ 맞음** **지역 말투와 행동이 현장감과 다정한 응대를 드러낸다.**
방언의 지역적 특색과 의자·수건을 내주는 행동을 함께 근거로 삼았습니다.

④ **× 틀림** **의자와 수건을 주는 행동은 지역 말투의 무례함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동이다.**
지역 말투가 무례하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함께 다정한 응대를 보여 줍니다.

다시 볼 설명 E19 **문제로 돌아가기** Q29

A30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다빈이 번호표를 구겼다.

판단 거친 말과 행동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함께 드러냅니다.

① **× 틀림** **거친 말투로 성급한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이름 붙여 설명한다.**
“젠장”은 인물의 대사이고 번호표를 구기는 행동이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서술자의 직접 성격 설명이 아닙니다.

② **× 틀림** **“젠장”이라는 표현에서 안내 데스크를 비난하는 서술자의 냉소가 드러난다.**
거친 말을 한 사람은 다빈입니다. 인물의 말투를 서술자의 태도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③ **○ 맞음** **차례가 건너뛰어진 데 대한 불만과 거친 태도를 드러낸다.**
“젠장”이라는 표현이 번호표를 구기고 다가가는 행동과 연결됩니다.

④ **× 틀림** **차례를 놓친 일을 가볍게 농담하여 안내 직원과 친근한 관계를 드러낸다.**
번호표를 구기고 크게 걸어가는 행동이 불만을 뒷받침합니다. 서로 농담하는 반응은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9 **문제로 돌아가기** Q30

A31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서운하고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판단 감각적 장면과 서술자의 정서적 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① **○ 맞음** **(가)는 시각적 묘사, (나)는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
달빛과 젖은 끈은 감각적 묘사이며, 안타깝다는 말은 서술자의 정서적 평가입니다.

② **× 틀림** **(가)의 “머물렀다”에서 서술자의 안타까운 평가가 직접 드러난다.**
달빛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안타깝다고 직접 평가한 부분은 (나)입니다.

③ **× 틀림** **(나)는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전하므로 서술자의 태도가 아니라 인물의 심리 설명이다.**
아이의 생각이나 대사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지를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평가한 서술자의 말입니다.

④ **× 틀림** **(가)는 기다림의 긴 시간을 짧게 정리한 요약적 제시이다.**
달빛과 젖은 끈을 감각적으로 펼친 장면입니다. 기다린 기간을 요약한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볼 설명 E20 **문제로 돌아가기** Q31

A32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나는 천천히 걸었다.

판단 짧은 문장으로도 움직임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이 부분의 문체만으로 실제 작가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다.**
표현의 특색과 실제 작가의 인격은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 맞음** **짧고 간명한 문장들이 이어진다.**
네 문장을 간결하게 나란히 놓아 간결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③ **○ 맞음** **어둠과 발소리의 부재가 골목의 분위기를 만든다.**
시각·청각 정보가 한적하고 조용한 장면을 구체화합니다.

④ **× 틀림** **문장이 짧으므로 긴 시간의 사건을 요약한 것이 확실하다.**
오랜 기간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과 긴 시간의 압축은 다른 기준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5, E17, E20 **문제로 돌아가기** Q32

A33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자신의 이름을 칭찬하는 글을 낸 사람에게만 입장표를 주었다.

판단 내세운 개방성과 실제 배제 사이의 모순을 읽습니다.

① ◯ 맞음 **개방을 약속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모순**

현수막의 주장과 실제 입장 조건이 충돌합니다. 회장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비판 대상입니다.

② × 틀림 **회장이 칭찬을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모순**

칭찬하는 글을 낸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핵심은 개방 약속과 제한된 입장의 충돌입니다.

③ × 틀림 **모임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와 글로 홍보하는 방법 사이의 모순**

글로 홍보하는 방법은 널리 알리려는 의도와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④ × 틀림 **현수막에는 회장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입장표에는 쓴 모순**

이름이 어느 물건에 적혔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입장 조건을 개방 약속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1 **문제로 돌아가기** Q33

A34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둘은 웃었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외투를 챙겨 주었다.

판단 익살스러운 실수와 돌보는 반응이 친근한 웃음을 만듭니다.

① × 틀림 **손전등을 찾는 행동으로 할아버지의 이기심을 비판하는 풍자가 중심이다.**

작은 실수와 함께 웃는 반응이 중심이며 부당한 이기심을 드러내는 근거는 없습니다.

② × 틀림 **손녀의 재치 있는 말은 할아버지의 무능을 차갑게 낮추는 냉소이다.**

함께 웃고 외투를 챙겨 주는 행동은 차가운 멸시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③ × 틀림 **외투를 챙기는 행동은 서술자가 손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 설명하는 말하기이다.**

성격을 이름 붙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을 보여 주는 간접 제시입니다.

④ ◯ 맞음 **손에 든 물건을 찾는 실수와 재치 있는 말이 친근한 웃음을 만든다.**

둘이 함께 웃고 외투를 챙기는 반응이 따뜻한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2, E23 **문제로 돌아가기** Q34

A35 정답 ③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이름표 모서리가 턱을 밀어 올려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

판단 과장된 물건이 위엄을 보이려는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① **× 틀림** **위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인물의 독백으로 길게 펼친다.**
행동의 이유를 짧게 설명하지만 긴 독백이 중심은 아닙니다. 큰 이름표 때문에 인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핵심입니다.

② **× 틀림** **턱을 올리는 행동을 통해 주민을 내려다보려는 의도적인 위압을 보여 준다.**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은 이름표 모서리가 턱을 미는 결과입니다. 일부러 위압하는 행동으로 바꾸면 우스운 어긋남을 놓칩니다.

③ **○ 맞음** **과장된 이름표가 인사를 가로막게 그린다.**
위엄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우스운 결과가 어긋나도록 표현했습니다.

④ **× 틀림** **인사를 못한 처지를 주변 인물이 감싸 주는 해학을 중심으로 한다.**
주변 인물이 도와주거나 감싸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름표의 과장과 그로 인한 우스운 모습이 제시됩니다.

다시 볼 설명 E23 **문제로 돌아가기** Q35

A36 정답 ①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소매 끝에 “조카 만점”이라고 쓴 쪽지가 매달려 있었다.

판단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비판에 쓰입니다.

① **○ 맞음** **희화화가 불공정한 심사 태도의 풍자에 쓰인다.**
표현 방법은 우스꽝스럽게 그리기이고, 그 기능은 약속과 행동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② **× 틀림** **조카를 챙기는 마음을 소매의 과장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해학이 중심이다.**
공정을 약속하고 조카만 우대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감싸는 시선보다 부정한 심사에 대한 비판이 중심입니다.

③ **× 틀림** **심사위원이 조카를 편들었다고 직접 설명하므로 우스운 모습을 그리는 방법은 쓰이지 않는다.**
긴 소매와 끝에 달린 쪽지가 잘못을 숨기려다 드러내는 우스운 모습을 만듭니다.

④ **× 틀림** **소매의 과장된 크기를 보고 심사위원의 능숙한 은폐를 칭찬하게 한다.**
쪽지가 소매 끝에 달려 비밀을 드러내므로 능숙한 은폐를 칭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다시 볼 설명 E21, E23 문제로 돌아가기 Q36

A37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입만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판단 대상을 차갑게 깎아내리는 표현을 근거로 삼습니다.

① ✕ 틀림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위원의 사정을 안타깝게 감싸는 태도가 드러난다.**
실행하지 않는 형편을 이해하기보다 말만 한다고 낮추어 평가합니다.

② ◯ 맞음 **실행하지 않는 위원을 “입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차갑게 비웃는다.**
“입만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실행 없이 말만 하는 태도를 차갑게 낮추어 봅니다.

③ ✕ 틀림 **“입만 부지런한”은 위원의 성실한 실행력을 인정하여 칭찬하는 표현이다.**
“입만”은 실행 없이 말만 한다는 제한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실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 틀림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위원 자신의 자책이 직접 대사로 제시된다.**
따옴표 속 위원의 발언이 아니라 서술자가 그를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볼 설명 E20, E24 문제로 돌아가기 Q37

A38 정답 ②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참으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

판단 늦은 행동과 겉으로 한 칭찬의 말의 반대 관계를 봅니다.

① ✕ 틀림 **안내인의 행동을 차갑게 비판하므로 칭찬 표현과 속뜻 사이의 관계는 살필 필요가 없다.**
반어를 설명하려면 겉으로 한 칭찬의 말이 지각이라는 상황과 반대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 맞음 **시간을 어긴 행동을 제시한 뒤 반대되는 칭찬으로 비꼰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상황에서는 시간 약속을 어긴 태도를 비판합니다.

③ ✕ 틀림 **“귀하게”는 늦은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서술자의 실제 칭찬이다.**
시간을 어긴 사실 뒤에 시간 존중을 칭찬하므로 표면적 칭찬과 속뜻이 반대입니다.

④ ✕ 틀림 **마지막 문장은 안내인이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도록 덧붙인 변명이다.**
안내인의 대사로 인용되지 않은 서술 문장이므로 서술자의 반어적 논평입니다.

다시 볼 설명 E24, E11 문제로 돌아가기 Q38

A39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남의 등에 올라타야만 높아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판단 반어의 구조와 차가운 비웃음의 태도를 나누어 봅니다.

① **× 틀림** **(가)는 아이가 흔적을 감춘 솜씨를 칭찬하고, (나)는 능력 있는 인물에 대한 반어적 칭찬이다.**
(가)는 부스러기가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인물을 낮추어 평가하므로 칭찬의 겉으로 한 말이 없습니다.

② **× 틀림** **(가)는 아이를 비난하는 냉소이고, (나)는 잘못을 감싸 주는 해학이다.**
(가)의 함께 웃기는 친근한 관계를, (나)의 "보잘것없는"은 차가운 낮춤을 뒷받침합니다.

③ **× 틀림** **(가)와 (나)는 모두 겉으로 칭찬하면서 속으로 비판하는 반어이다.**
(가)는 흔적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겉으로도 보잘것없다고 평가합니다. 두 문장 모두를 반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 맞음** **(가)는 반어가 친근한 웃음에 쓰이고 (나)는 차갑게 낮추어 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가)는 흔적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며 함께 웃고, (나)는 인물을 업신여기는 평가를 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2, E24 **문제로 돌아가기** Q39

A40 정답 ④

근거 인용 · 문제 지문

> 검소함이 우리 마을의 자랑

판단 검소함의 주장과 과시하는 행동의 모순을 확인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황금 테두리의 상패는 검소함을 내세운 말과 어긋난다.**
검소함을 강조하면서 값비싼 장식을 주문한 모순을 읽을 수 있습니다.

② **○ 맞음** **지나치게 무거운 상패와 거짓 자세가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과장된 물건과 실제와 다른 과시 행동이 희화화에 쓰입니다.

③ **○ 맞음** **사진 속 겉모습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두 사람이 들어 준 상패를 혼자 든 것처럼 찍으려 합니다.

④ **× 틀림** **과장된 상패와 우스운 자세는 촌장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는 해학이 중심임을 보여 준다.**
검소함을 내세우면서 값비싼 장식을 과시한 모순을 비판합니다. 우스운 모습 자체만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해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21, E22, E23 **문제로 돌아가기** Q40

A41 예시 답안

예시 답안
(가)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전하고, (나)는 인물이 자기 두려움을 말하는 대사로 전합니다. (나)는 밖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므로 이 내용만으로 관찰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점 요소
- (가)의 직접 내면 서술을 밝힙니다.
- (나)의 인물 대사를 정보 전달 통로로 밝힙니다.
- 감정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전달 통로를 근거로 (나)를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 유의할 점 (나)에 감정어가 있으니 무조건 전지적 시점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한 부분만으로 작품 전체의 시점까지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4, E05 **문제로 돌아가기** Q41

A42 예시 답안

예시 답안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전하는 목소리이며, 초점 인물은 모자를 보고 기대하는 연서입니다. 모자를 놓은 사람의 정체는 독자에게 아직 알려 주지 않습니다.

채점 요소
- 이야기 밖의 서술자와 연서를 구별합니다.
-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인 연서를 초점 인물로 밝힙니다.
- 모자를 놓은 사람의 정체가 글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을 씁니다.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연서가 기대했다고 오빠의 귀환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 “누가 모자를 두었는지”, “오빠가 실제로 돌아왔는지”처럼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도 인정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문제로 돌아가기** Q42

A43 예시 답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둘 다 요약적 제시이지만 정리한 대상이 다릅니다. (가)는 수호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나)는 십 년의 사건을 압축합니다. (다)는 나사를 만지는 짧은 순간의 동작을 여러 문장으로 펼치므로 문장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긴 시간의 압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점 요소

- (가)를 성격의 직접 설명으로 구별합니다.
- (나)를 십 년이라는 긴 사건 시간의 압축으로 구별합니다.
- (다)의 짧은 시간 범위와 여러 동작 제시를 근거로 문장 길이·시간 압축을 나눕니다.

판단할 때 유의할 점 간결체와 요약적 제시는 같은 분류가 아닙니다. 짧다는 형식만 되풀이하지 말고 사건의 시간을 근거로 씁니다.

다시 볼 설명 E12, E15, E17 **문제로 돌아가기** Q43

A44 예시 답안

예시 답안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 자리만 높인 모순을 비판합니다. 탑처럼 높은 의자와 혼자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마지막 문장의 겉으로 한 말은 남과 같은 높이에서 산다는 칭찬이지만 속뜻은 높은 자리만 고집하는 태도를 비꼬는 것입니다.

채점 요소

- 평등의 주장과 자기 자리만 높인 행동의 모순을 밝힙니다.
- 과장된 의자나 내려오지 못하는 우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마지막 문장의 겉으로 한 말을 정확히 풉니다.
- 상황과 반대되는 칭찬으로 특권 의식을 비꼬는 반어임을 설명합니다.

판단할 때 유의할 점 풍자·희화화·반어라는 이름만 나열하면 근거가 빠집니다. 마지막 평가는 서술자의 말입니다.

다시 볼 설명 E21, E23, E24 **문제로 돌아가기** Q44

A45 정답 ③

근거 인용 · 자료 A (가)

> 나는 동네 축제의 전시대를 혼자 완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판단 “나”가 자신의 과장된 평가를 돌아보고 행동을 바꾸는 일을 전합니다.

① **× 틀림** **연두와 민석의 행동까지 알려 주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마음을 직접 전한다.**
행동 관찰은 작품 안의 “나”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의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② **× 틀림** **공동 작업을 지켜본 “나”가 두 친구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하는 관찰자이다.**
중심은 친구의 성장보다 “나”의 공로 과장과 자기 인정·변화입니다.

③ **○ 맞음** **중심인물인 “나”가 자기 잘못과 변화를 전한다.**
대표 발언, 과장에 대한 인정, 이름을 적는 변화가 “나”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④ **× 틀림** **사진 밖의 손을 떠올린 (라)부터 연두가 자기 경험을 들려주는 서술자가 된다.**
손을 떠올리고 두려움을 인정하는 인물은 계속 “나”입니다. 연두의 직접 서술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2, E08 **문제로 돌아가기** Q45

A46 정답 ③

근거 인용 · 자료 A (다)

> 연두가 판을 받치는 동안 민석이 무릎을 꿇고 나사를 다시 조였다.

판단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동 작업이 혼자 했다는 평가와 충돌합니다.

① **× 틀림** **“나”가 안내판에 글씨를 썼다는 사실 자체**
이 사실은 “나”의 참여를 보여 줍니다. 다른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② **× 틀림** **사진에 “나”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 과정이 확인됨**
사진에 보이는 범위만으로 사진 밖의 노동까지 알 수 없습니다. 사진과 전체 과정은 같지 않습니다.

③ **○ 맞음** **기록부의 역할 분담과 연두·민석이 전시대를 고치는 행동**
다른 사람의 제작·수리 참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므로 “혼자”라는 주장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④ **× 틀림**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므로 실제로 모두 “나”만 일했다고 확인함**
박수는 “나”의 말에 대한 반응이며 작업 전 과정을 검증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10 **문제로 돌아가기** Q46

도해 · 사진 밖의 공동 작업

서술자의 평가	다른 사람의 작업 근거
“혼자 완성한 사람” (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습니다” (가)	기록부: 연두가 나무판 열 장, 민석이 받침 조립 (나) 개막 전날: 연두가 판을 받치고 민석이 나사를 조임 (다)

기록·행동과 어긋남 · 사진에 보이는 범위가 전체 작업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A47 정답 ②

근거 인용 · 자료 A (라)

> 내가 한 일을 작게 말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났다.

판단 과장을 비판하면서도 그 바탕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 틀림** **불안의 동기를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이름을 생략한 행동도 타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동기를 이해하는 것과 타인의 공로를 지운 행동이 옳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② **○ 맞음** **자랑을 그대로 믿지는 않으면서 기억되고 싶은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

과장의 인정과 그 이유인 불안이 함께 제시됩니다. 신뢰와 공감을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 틀림** **불안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처음에 공로를 독점한 평가도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뒤의 고백이 앞의 작업 분담과 수리 행동을 없애지 않습니다. 공로 평가는 여전히 다른 근거와 어긋납니다.

④ **× 틀림** **앞의 자기평가를 믿기 어려우므로 기억되고 싶다는 고백에도 공감할 근거가 사라진다.**

자기평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대한 이해는 함께 가능합니다. 고백은 처지를 이해할 근거가 됩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09, E10 **문제로 돌아가기** Q47

A48 정답 ①

근거 인용 · 자료 A (마)

> 내 글씨도, 연두의 나무판도, 민석의 받침과 나사도 적었다.

판단 서술자의 말은 다른 사실과 맞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처음의 자기평가는 공동 작업과 어긋나지만 끝의 기록은 그 사실과 맞으므로 신뢰 판단도 나누어야 합니다.

① ◯ 맞음 **처음의 “혼자 완성했다”는 평가는 믿기 어렵지만, 스스로 과장을 인정한 뒤 적은 기록은 앞의 사실과 맞는다.**
(나)·(다)의 공동 작업이 처음 평가를 반박합니다. (마)의 이름과 일 기록은 그 사실에 맞으므로 앞의 불신을 끝의 기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 틀림 **처음에 과장했으므로 마지막에 적은 이름과 일도 믿기 어렵다.**
뒤의 기록은 앞서 나온 역할·수리 행동과 맞습니다. 처음 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끝의 기록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 틀림 **불안을 고백했으므로 처음의 “혼자 완성했다”는 말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공감해도 다른 사람이 함께 작업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④ × 틀림 **사진을 다시 찍자고 하지 않은 행동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계속 숨기려 한다는 근거이다.**
이미 이름과 일을 공개하여 공로를 밝혔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지 않은 것을 은폐의 지속으로 해석하면 그 변화를 놓칩니다.

다시 볼 설명 E08, E10 **문제로 돌아가기** Q48

A49 정답 ②

근거 인용 · 자료 B (나)

> 안의 사람들이 어떤 악보를 펴고 있는지 소현은 알 수 없었다.

판단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소현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과 속마음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① × 틀림 **소현이 모르는 대호의 숨긴 마음을 처음부터 모두 알려 준다.**
대호의 말하지 않은 내면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종이의 정체도 문을 연 뒤 드러납니다.

② ◯ 맞음 **소현이 보고 듣고 생각한 범위를 따라 정보가 제시된다.**
문 밖에서는 정체를 모르다가 문을 열고 종이와 대사를 접한 뒤 정보가 늘어납니다.

③ × 틀림 **서술자가 감정은 모두 생략하고 동작만 나열한다.**
두려움과 추측, 깨달음이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④ × 틀림 **소현이 자신의 경험을 “나”로 직접 들려준다.**
이야기 밖의 목소리가 소현을 지칭하며 전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심과 서술자는 다릅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문제로 돌아가기** Q49

A50 정답 ②

근거 인용 · 자료 B (라)

> 그것은 악보가 아니라 행사 순서표였다.

판단 독자는 소현의 오해를 따라가다가 새 정보로 판단을 고치게 됩니다.

① **× 틀림** **문 안 사람의 의도를 먼저 알려 주어 소현의 추측이 틀렸음을 처음부터 확인하게 한다.**
문 안의 순서표와 말의 대상은 문을 연 뒤에야 드러납니다.

② **○ 맞음** **문 안의 정보를 늦게 밝혀 소현의 추측을 따라간 뒤 그 근거를 다시 살피게 한다.**
처음에는 말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문을 연 뒤 순서표와 이름 오자의 정보가 나옵니다.

③ **× 틀림** **닫힌 문을 유지하여 소현의 첫 추측을 끝까지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문을 열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소현이 처음 생각의 근거가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④ **× 틀림** **서술자가 대호의 악의를 사실로 증명하여 갈등을 확정한다.**
대호가 소현을 비웃거나 해치려 했다는 내면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E10 **문제로 돌아가기** Q50

도해 · 닫힌 문 앞뒤의 정보 (→ 정보가 제시되는 차례)

문 밖 (나)~(다)
들림: 말소리, 웃음소리
안 보임: 펼친 종이
추측 틀린 연주 이야기, 나를 웃음

→

문을 연 뒤 (라)
새로 확인한 사실
행사 순서표 · 이름을 잘못 적음

끝까지 알려 주지 않은 것 안에서 웃은 이유 (마)

A51 정답 ③

근거 인용 · 자료 B (라)

> 아까의 말이 연주를 가리켰다는 자기 생각에는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단 인물의 해석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합니다.

① **× 틀림** **소현이 두려워했으므로 실제로 모두가 연주를 비난했다.**
소현의 감정은 타인의 행동을 입증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② **× 틀림** **행사 순서표가 나왔으므로 공연에서 반주를 틀린 일도 없었다.**
말의 대상을 오해한 것과 앞서 실제로 실수한 일은 별개입니다.

③ **○ 맞음** **소현은 새 정보에 따라 처음의 추측을 수정한다.**
문을 열고 순서표를 본 뒤 아까의 말을 연주와 연결할 근거가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④ × 틀림 **오해가 드러났으므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고의로 거짓말했다.**

서술자는 소현의 생각을 생각으로 전했습니다. 이를 확정된 사실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8 문제로 돌아가기 Q51

A52 정답 ④

근거 인용 · 자료 B (마)

> 안에서 왜 웃었는지는 여전히 묻지 못했다.

판단 새로 밝혀진 정보와 끝까지 남은 빈칸을 구별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소현의 생각은 바뀌어도 서술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야기 밖에 있다.**

소현의 내면 변화는 전하지만 서술자가 소현의 직접적인 "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② ○ 맞음 **문을 열기 전에는 소현이 종이의 내용을 볼 수 없다.**

문 안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문을 연 뒤 순서표를 봅니다.

③ ○ 맞음 **대호가 의자를 당기는 행동은 제시된다.**

(마)에서 의자를 옆으로 당겼다고 직접 전합니다.

④ × 틀림 **웃음의 이유까지 마지막에 확실하게 밝혀진다.**

끝에서도 왜 웃었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6, E07 문제로 돌아가기 Q52

A53 정답 ①

근거 인용 · 자료 C (가)

> 유건은 삼 년 동안 가구 공방의 견습으로 일했다.

판단 긴 기간의 압축과 짧은 순간의 구체적 재현을 구별합니다.

① ○ 맞음 **(가)는 삼 년의 과정을 압축하고 (나)~(다)는 떠나는 날의 한순간을 펼친다.**

수련 과정은 짧게 정리하고 대패를 만지고 감싸는 순간은 감각·행동·대화로 제시합니다.

② × 틀림 **(나)~(다)는 대패를 주고받은 결과를 요약하여 떠나는 날의 시간을 빠르게 건너뛴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 천을 묶었다 푸는 짧은 순간을 자세히 펼칩니다. 결과만 요약하지 않습니다.

③ × 틀림 **(가)와 (다)는 성격을 직접 설명하여 유건의 성실함을 말하기로 제시한다.**

(가)는 사건을 요약한 말하기이지만 성격을 직접 이름 붙인 문장이 아니고, (다)는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④ ✕ 틀림 **(가)는 여러 계절을 각각의 대화 장면으로 보여 주어 수련 과정을 느리게 펼친다.**

여러 계절을 언급하지만 개별 대화·장면으로 펼치지 않고 삼 년을 짧게 정리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2, E13, E15 문제로 돌아가기 Q53

A54 정답 ①

근거 인용 · 자료 C (라)

> 기름 냄새. 처음 이곳에 들어온 날에도 났지.

판단 현재의 냄새에서 과거의 기억과 다른 촉감으로 연상이 이어집니다.

① ◯ 맞음 **기름 냄새에서 과거의 기억과 감각이 연상된다.**

냄새에서 기억으로, 버스 손잡이의 차가움에서 현재 대패의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② ✕ 틀림 **기름 냄새 뒤에 아버지가 나타나 버스에서 한 말을 유건에게 직접 전한다.**

아버지가 현재 장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옛 기억을 불러옵니다.

③ ✕ 틀림 **현재의 냄새와 손의 감각을 일정한 공간 순서로만 배열하여 공방 구조를 설명한다.**

냄새에서 아버지와 버스의 기억으로 옮겨 가므로 현재 공간만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④ ✕ 틀림 **수련 생활의 삼 년을 일어난 순서대로 요약하여 시간의 흐름을 정리한다.**

(라)는 삼 년의 사건 목록이 아니라 감각·기억·질문이 연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4, E20 문제로 돌아가기 Q54

A55 정답 ①

근거 인용 · 자료 C (다)

> 매듭을 묶었다. 다시 풀었다. 천 한 겹을 더 둘렀다.

판단 간결한 문장들이 오히려 작은 동작을 차례로 자세히 보여 줍니다.

① ◯ 맞음 **작은 동작을 각각 드러내 대패를 감싸는 순간에 주목하게 한다.**

문장은 짧지만 매듭을 묶고 풀고 덧싸는 순간을 여러 단계로 펼칩니다.

② ✕ 틀림 **비슷한 동작을 되풀이하여 여러 날의 포장 연습을 압축해 전한다.**

대패를 받는 날의 한순간입니다. 반복 동작을 여러 날의 일로 바꾸어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③ ✕ 틀림 **짧은 문장으로 유건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직접 이름 붙여 설명한다.**

성격 평가어를 붙이기보다 묶고 풀고 덧싸는 행동으로 태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④ ✕ 틀림 **한 문장마다 행동을 마무리하므로 대패를 받은 뒤의 긴 기간을 빠르게 건너뛴다.**

각 문장이 짧아도 이어지는 행동은 같은 순간을 자세히 펼칩니다. 긴 기간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3, E15, E17 문제로 돌아가기 Q55

도해 · 작업대의 시간과 문장

부분	제시 방식	근거	문장 길이
(가)	**시간 압축**	삼 년의 견습 생활을 짧게 정리	
(나)~(다)	**장면적 제시**	떠나는 날 손을 얹고, 천을 묶고 풀고 다시 두름	(다) “매듭을 묶었다. 다시 풀었다.” — 간결체
(라)	**의식의 흐름**	기름 냄새 → 첫날 → 아버지 작업복·버스 손잡이 → 지금 대패	

간결체와 장면적 제시는 함께 성립합니다.

A56 정답 ②

근거 인용 · 자료 C (마)

>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빛이 빈 자리를 천천히 덮었다.

판단 감각적 장면의 분위기를 읽되 글에 나오지 않은 감정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① **× 틀림** **빈 작업대를 비추는 빛으로 스승이 유건을 원망하는 속마음을 직접 설명한다.**
빛과 빈 자리를 묘사할 뿐 스승의 원망을 직접 알려 주지 않습니다.

② **○ 맞음** **아침빛과 빈 작업대의 시각적 장면으로 떠난 뒤의 조용한 분위기를 만든다.**
빈 자리와 천 조각을 비추는 빛이 장면을 감각적으로 제시합니다.

③ **× 틀림** **아침빛을 따라 서술자가 유건의 속마음에서 스승의 속마음으로 초점을 옮긴다.**
스승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하지 않으므로 스승의 내면으로 초점이 옮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④ **× 틀림** **작업대가 비었다는 말로 유건이 돌아오지 않을 미래를 확정하여 요약한다.**
지금의 빈 자리를 그렸을 뿐 앞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일을 확정해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20 문제로 돌아가기 Q56

A57 정답 ④

근거 인용 · 자료 D (다)

> 주민의 편의는 입에서만 넓고 문 앞에서는 한없이 좁았다.

판단 주민을 위한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우선하는 행동의 모순을 읽습니다.

① **× 틀림** **주민의 편의를 지키려 했으나 문이 좁아 뜻을 이루지 못한 선의**

큰 이름 과시와 안내문 금지는 공간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태도입니다. 선의의 실패보다 말과 행동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② **× 틀림** **책임자의 이름이 가려지도록 현판을 옮긴 주민들의 무례한 태도**

주민은 현판을 옮기고 앞문을 열어 이용을 편하게 합니다. 이 행동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자기 이름을 앞세운 태도를 비판합니다.

③ **× 틀림** **회의 형식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는 검소한 태도**

작은 의자를 내준 것은 청소 아저씨입니다. 그 따뜻한 행동은 책임자의 과시를 비판하는 중심 대상이 아닙니다.

④ **○ 맞음** **주민을 위한다며 자기 이름 과시를 앞세우는 태도**

큰 현판으로 앞문을 막고 안내문도 금지하여 약속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1, E11 **문제로 돌아가기** Q57

A58 정답 ④

근거 인용 1 · 자료 D (나)

> 한 팔은 회관 안에, 다른 팔은 마당에 남았다.

근거 인용 2 · 자료 D (다)

> 그토록 주민을 배려하는 분이니, 주민들이 현판을 돌아 먼 뒷문으로 다니게 된 일도 깊은 뜻이 있었으리라.

판단 희화화와 반어적 논평이 책임자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① **× 틀림** **(나)는 희화화로 책임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다)는 그 배려를 실제로 칭찬한다.**

끼인 모습과 주민의 우회 통행은 과시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다)의 칭찬도 상황과 반대되는 반어입니다.

② **× 틀림** **(나)는 서술자의 평가로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다)는 인물 대사로 비판을 대신한다.**

(나)는 과장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는 책임자의 대사가 아닌 서술자의 논평입니다.

③ **× 틀림** **(나)는 우스운 행동으로 비판하고, (다)는 책임자가 자기 의도를 설명하는 대사이다.**

(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다)의 배려와 깊은 뜻은 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서술자가 반대로 칭찬하며 비꼰 말입니다.

④ **○ 맞음** **(나)는 끼인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다)는 겉으로 한 칭찬의 말로 불편을 만든 행동을 비꼰다.**

몸이 낀 모습은 희화화이며 주민을 배려한다는 겉으로 한 말은 먼 뒷문으로 돌아가게 한 사실과 반대됩니다.

다시 볼 설명 E11, E23, E24 문제로 돌아가기 Q58

도해 · 책임자의 말·행동과 서술자의 평가

근거	지문	읽어 낼 것
주민 편의 약속	(가) “주민이 편하게 쓰는 회관을 만들겠습니다.”	내세운 말
이름 과시와 통행 방해	(가)~(다) 큰 현판, 앞문을 가림, 안내문 금지	말과 어긋난 행동 — **풍자**
끼인 모습	(나) 한 팔은 회관 안에, 다른 팔은 마당에	**희화화**
배려한다는 서술자의 말	(다) “그토록 주민을 배려하는 분이니 … 깊은 뜻”	**반어적 논평**

(라)의 청소 아저씨는 비판 대상이 아닙니다. (마)에서 손을 내린 행동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A59 정답 ①

근거 인용 · 자료 D (라)

> 아저씨는 웃으며 아이 옆에 앉았다.

판단 익살과 도움을 주고받는 반응이 친근함을 만듭니다.

① ◯ 맞음 **빗자루가 먼저 쉰다는 익살과 아이의 도움이 친근한 웃음을 만든다.**
의자를 내주고 빗자루를 받아 주며 함께 앉는 행동은 따뜻한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② × 틀림 **빗자루가 먼저 쉰다는 농담은 앞부분의 책임자를 비꼬는 풍자이다.**
그 말은 앉으려다 빗자루가 의자에 기대는 아저씨 자신의 상황을 익살스럽게 나타냅니다. 책임자의 잘못을 직접 비꼰 말이 아닙니다.

③ × 틀림 **빗자루를 사람처럼 말한 것은 아저씨 자신을 차갑게 깎아내리는 냉소적 어조이다.**
웃으며 아이 옆에 앉고 도움을 받는 따뜻한 상황입니다. 물건을 사람처럼 말한 것 자체가 차가운 멸시의 근거는 아닙니다.

④ × 틀림 **아이가 빗자루를 받아 준 것은 아저씨의 실수를 비웃으며 공격하는 행동이다.**
빗자루를 받아 주어 앉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공격하거나 낮추는 반응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다시 볼 설명 E22, E23 문제로 돌아가기 Q59

A60 정답 ③

근거 인용 · 자료 D (마)

> 책임자는 종이를 떼려다 주민들의 시선을 보고 손을 내렸다.

판단 제시된 행동과 내면에 대한 추측을 구별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① **◯ 맞음** **(마)에서 앞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주민들이 현판을 옮기고 앞문을 열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 맞음** **책임자의 말과 현판을 배치한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편한 회관을 약속하고도 현판으로 앞문을 막아 이용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③ **× 틀림** **마지막 행동으로 책임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고 확정할 수 있다.**
손을 내리는 행동은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직접 제시되지 않습니다.

④ **◯ 맞음** **(다)의 “깊은 뜻”은 맥락상 책임자의 배려를 그대로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주민들이 돌아가게 만든 사실과 반대되는 겉으로 한 말로 비꼽니다.

다시 볼 설명 E05, E11, E21, E24 **문제로 돌아가기** Q60